Weekly
공감

2011.08.10 NO.121
gonggam.korea.kr



대한민국이 키운 벤처기업 이제는 대한민국을 키운다 P25~39

“올핸 물폭탄에도 둑이 안넘쳤어요”… 4대강살리기 여주 가보니 P20~21

봉사활동 중 산사태로 희생된 인하대생들… ‘나눔의 꽃’ 되다 P6~7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2012년 3월 서울에서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핵안보 및 핵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며, 핵안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국민 여러분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로고와 슬로건을 공모 합니다.

공모 분야

로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상징 로고

슬로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목표를 잘 표현하는 문구

참여 대상

- 대학(원)생 부문 :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학(원) 소속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일반인 부문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진행 일정

- 접수기간 : 2011.7.20(수) ~ 2011.8.14(일)
- 심사기간 : 2011.8.16(화) ~ 2011.8.26(금)
- 당선작 발표 : 2011.8.29(월) 오후 5시
- 시상식 : 2011.9.1(목) 예정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참가 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seoulnss.go.kr)를 통한 접수
- 우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24층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공모전운영 사무국 앞 (우:135-090)

접수형태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seoulnss.go.kr)에서 작품별 별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등록
- 우편 접수 : 홈페이지 (www.seoulnss.go.kr)에서 작품별 별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우편발송

수상내역

(단위: 만원)

구분	대학생 부문		일반인 부문	
	로고	슬로건	로고	슬로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단장상 (외교통상부 장관상)	200	100	200	10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100	50	100	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00	50	100	50
지식경제부 장관상	100	50	100	50

운영사무국

- 문의전화 : 02)2016 -7160, 2016 -7103
- 이메일 : nsscom@mofat.go.kr

그 외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seoulnss.go.kr

스마트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모바일 공모전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주최 및 주관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중소·벤처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조선DB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벤처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는 창조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다. 벤처는 새로운 지식,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고객을 창출한다. 성장동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영연방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이스라엘 등도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벤처활성화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벤처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기업가적 잠재력을 가진 우수 인재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우수 전문인력은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창업활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벤처활성화의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창업에 뛰어드는 우수인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에 따른 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입보(보증), 연대보증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 사업위기나 기업실패 시 개인희생을 줄이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파산제도의 개선과 기업정리 컨설팅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전문화와 함께 기업가정신 센터, 아이디어 팩토리, 기술지주회사 등의 창업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 기관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창업 전 기업가로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보육·컨설팅 등의 적절한 공급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달정책 개선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혁신제품에 정부 조달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 그 방법이다. 혁신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업가적 잠재력을 가진 우수 인재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즉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에 따른 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대보증제를 개선하여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창업 전이나 초기 단계에 융자가 아닌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지원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장관행과 대기업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대기업 연대에 의한 시장관행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우수 전문인력의 창업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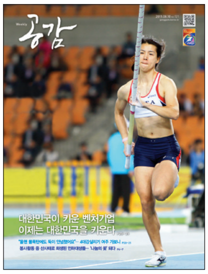
Contents NO.121 2011.08.10 통권 222호



기획특집

벤처천억기업 러시 대한민국 경제 젖줄로

아프리카 사막에 가면 '가젤'이란 동물이 있습니다. 영양류의 일종으로 메마른 초지를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산업계에서는 수년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한 기업을 '가젤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젤형 기업은 모든 기업인이 선망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젤 같은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3년 연속 20퍼센트 이상 성장한 기업이 42개에 이릅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1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기업은 3백15곳이나 됩니다.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도 세 개나 됩니다.



표지 이야기 '한국의 미녀새'로 불리는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최윤희(25·SH공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필드 종목에서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할 한국 선수로 꼽히고 있다. 사진·연합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8.1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18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등불입니다

"120호 기획특집 '나눔·봉사가 넘치는 사회가 다가옵니다'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극도의 이기주의와 금전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다지만 아직 나눔과 배려의 자세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긴 했어도 양극화 현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랑과 봉사의 자세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나누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규연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고졸 취업문 활짝'에 덩달아 웃음꽃

"120호 핫이슈 '고졸 취업문 활짝 열리니 특성화고 웃음꽃' 기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은행권에서 15년 만에 고졸행원을 선발하는 등 최근 취업시장 전반에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은 고학력 인플레와 학벌 만능주의의 그릇된 관행을 해소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호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특성화고의 활성화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수해복구, 모두가 한마음으로!

"120호 사진뉴스 '수해복구 한마음'에서 시민, 공무원, 군 장병 구분 없이 모두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는 피서 대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이재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김준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소통칼럼 통해 자녀들의 일상 엿볼 수 있어

"120호 소통칼럼 '다그치기 앞서 마주 앉아라'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의 강의실 풍경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는데 이번 칼럼을 통해 강의실 풍경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전이 빠른 만큼 세대 간의 격차도 커지는 세상에서, 신세대에게 충고를 하려면 일단 신세대의 현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이 가슴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로서 알지 못하던 자녀들의 일상을 엿본 듯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유익한 칼럼이었습니다."

전흥진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피스토리우스 선수를 응원합니다

"119호 특별기획 '다리 없는 의족선수 달구벌 달린다' 기사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모든 장애우에게 용기와 의지를 심어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피스토리우스 선수의 투혼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선수가 이번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박명신 (인천시 서구 석남1동)

이 기사, 아쉬워요

"'마이스터고' 특징도 간략히 써줬으면"



120호 핫이슈 고졸취업에 관련된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학금제도나 취업 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기사 내용 중 '마이스터고'라는 명칭은 제게 다소 생소했습니다. 간략한 소개나 특징을 덧붙여 주셨으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송혜림 (대학생·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갯골'의 정확한 뜻도 알려줬으면"



지난 119호 '갯벌체험 때 갯골 넘어가지 마세요' 기사의 물놀이 안전 수칙이나 대처법 등의 내용은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갯골에 대한 용어 설명이 없어서 일러스트를 봐도 갯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갯골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면 피서를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수현 (회사원·부산시 중구 보수동)**

〈Weekly 공감〉 119호 '도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퀴즈' 정답자

기영천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 **김월순**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안준희**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 **염봉준** · 부산시 연제구 연산8동 / **이지현** · 서울시 노원구 상계10동 / **이현기** · 대전시 동구 소제동 / **이현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 **정지선**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 **조은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홍하례** · 전남 신안군 장산면

알 림

한·미 FTA 에세이를 공모합니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대학사회 내의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 · 미 FTA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주제 | 한 · 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공모 기간 | 8월 25일까지
응모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302호 무역협정본부 교육홍보팀 대학(원)생 한 · 미 FTA에세이 공모전 담당자
hshan@mosf.go.kr

FTA종합지원포털 www.ftahub.go.kr ☎ 02-2150-5755

위클리공감 iPad 전자책 서비스



대한민국 대표 정책정보지 위클리공감 애플리케이션(이하 위클리공감 앱)이 아이패드용 전자책(PDF)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위클리공감 앱은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위클리공감'으로 검색, 내려받을 수 있으며 창간호인 2009년 3월 4일자부터 최신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한 발짝 더 소통하려 노력하는 위클리공감의 다양한 소식들을 언제 어디서나 위클리공감 앱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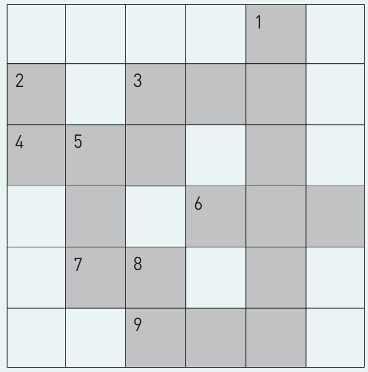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1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부산에 있는 바닷가. 피서지로 이름난 해수욕장도 있죠.
4.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추는 탈춤. 중요 무형문화제 제39호.
6. 본래 '우상'을 뜻하지만, 인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됐죠. ○○○ 가수.
7. 몸이나 힘이 쇠처럼 강한 사람. "그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 5종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9. 여름나기에 없어선 안 될 냉방기구죠. 에어컨보다 전력 소비가 적어 좋지요.

세 로

1. 폴을 사용하는 육상 도약 경기. "한국 여자 ○○○○○○의 간판스타 최윤희 선수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녀새'로의 등극을 꿈꾸고 있다."
2.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력, 창의력, 아이디어 등으로 모험적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을 줄여서 뭐라 부르죠?
3. 바다 위에 끼는 안개.
5. 스프링.
8. 여러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가려 뽑음.

〈Weekly 공감〉 119호(7월 2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새만금 **4** 스타 **5** 기대 **7** 간이역 **8** 구태여
세로 **1** 템플스테이 **2** 새침데기 **3** 금방 **6** 대구 **7** 간여

〈Weekly 공감〉 11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혜경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박지영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서양순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장선균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주소정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하늘나라 별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길…

'발명캠프' 자원봉사 갔다 춘천 산사태로 희생된 인하대생들

춘천 산사태로 운명을 달리한 인하대 발명동아리 '아이디어 뱅크'의 학생 10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지난 7월 31일 인하대에서 거행됐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갔다 당한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학우들은 먼저 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현이 형은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동아리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을 좋아했죠. 재미있는 성격의 민성이 형은 항상 후배를 잘 챙겨 주는 멋진 선배였어요. 정희 형은 성격이 좋아서 모두가 친형처럼 따랐을 정도였고요. 책임감이 강했던 용규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친구였어요. '인하대에 들어와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강상규(23·인하대 전기학과)

"경철이와 명준이는 항상 밝은 성격에 재치가 있어 우리를 웃기던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유라는 엉뚱하지만 해맑은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늦게 입학해 나이가 많았던 슬기는 싹싹한 성격으로 동기는 물론이고 선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유신이와 명준이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 은사가 저희 동아리의 선배라는 인연이 있었어요."－한세미(20·인하대 신소재공학과)



내 것만 챙기기도 바쁜 이 시대에
칭송받아 마땅한 숭고한 영혼들,
너희는 춘천 상천초교 학생들의
영원한 선생님이다
우리도 너희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거라

－유가족 대표 영결사 중에서

시골 초등학생 위해 실험 프로그램 직접 준비

지난 7월 31일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에 위치한 '아이디어뱅크'의 동아리방에서 만난 학생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전했다.

곳곳에 걸린 추모의 현수막이 숙연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인하대 교정에는 젊은 청춘들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듯 소리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모임인 '아이디어뱅크'의 회원은 80명. 이 중 35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 실험이나 실습이 쉽지 않은 시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춘천으로 떠났다가 7월 27일 오전 0시 10분쯤 마을을 덮친 산사태를 만났다. 10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이경철(20) 최민하(19·여) 김재현(25) 이정희(25) 이민성(25) 신슬기(22·여) 성명준(19) 김유라(20·여) 최용규(20) 김유신(20)씨 등 10명이다.

학교 분향소에 조문을 온 고(故) 성명준씨의 친구 이호범(20·인하대 생명화학공학부)씨는 "명준이는 동아리와 관련된 일에 항상 적극적이었고 책임감이 강했다"며 "1학기를 마칠 무렵 명준이가 '여름방학 때 춘천에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자랑했는데…"라고 말했다.

고 성명준씨의 외할아버지 박용노(69)씨는 "캠프를 떠나기 전 용돈으로 준 5천원권 지폐 2장이 유품인 지갑에서 흙 묻은 채로 발견됐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며 외손자를 먼저 보낸 슬픔을 나타냈다.

7월 31일 오전 인하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거행된 합동영결식은 빗속에서 치러졌다. 고 김유라씨의 아버지 김용주(55)씨는 "대학 1학년 첫 방학을 맞아 떠난 캠프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라고 했는데



"너희는 춘천 상천초교 학생들의 영원한 선생님". 봉사활동 중 산사태로 숨진 인하대생 10명의 합동영결식장에서 고 이정희씨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죽어서 돌아오니 슬프다"며 눈물을 삼켰다.

고 이정희씨의 여동생 이선화(23)씨는 "캠프 첫날인 25일 밤 '휴대전화 충전기를 안 가져와 혹시 전화를 못 받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흐느꼈다.

고 이민성씨의 어머니 김미숙(50)씨는 먼저 떠난 아들의 영정 앞에 흰 국화를 내려놓으며 "좋은 곳으로 가라, 아들아. 조금 있다가 만나자"라고 말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먼저 간 친구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살겠다"

아들과 딸을 잃은 슬픔에 목놓아 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오열의 현장을 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대학 선후배와 친구들. 영결식은 남아있는 이들의 눈물과 통곡 속에서 진행됐다.

고 김유신씨의 작은아버지 김현수씨는 영결식을 마친 8월 2일에 사이버분향소를 통해 "슬픔은 우리 삶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삶의 다른 모습이라고 여깁시다" "산 자의 몫을 다하도록 합시다. 병상 학우들이 걱정입니다. 많은 문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 희망의 기쁜 날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라는 글을 적어 남은 이들에 대한 걱정을 남기기도 했다.

인하대학교 사이버분향소에 애도의 글들이 이어졌다. 추도의 글을 올린 네티즌들은 젊은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하러 갔다가 희생된 데 대해 애도하면서, 그들의 봉사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번에 희생된 고 김유신씨의 친구가 올린 글이다.

〈유신아! 잘가라! 유신이 덕에 알게 된 김유라씨, 이민성씨, 최민하씨, 이정희씨, 김재현씨, 최용규씨, 신슬기씨, 이경철씨, 그리고 명준이. 좋은 곳에들 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재현씨의 친구는 벗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잘 가란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만 너한테 많이 배웠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앞으로도 자주 생각 날거야.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정확히 슬픔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걸 말해 주고 싶다. 넌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제 와 무슨 소용이겠냐만. 할 말도 결국은 잘 가라는 말이구나. 잘 가라 재현아.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란다.〉

"아직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지만 언젠가 극복하게 된다면 먼저 간 친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친구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죠"라는 한세미 학생의 말처럼 남은 이들이 하루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떠난 이들이 남긴 숭고한 봉사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G

글 · 이윤진 객원기자

"국방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

국방개혁토론회 열띤 토론… "상부지휘체계, 작전 중심으로 단순하게 변화시켜야"

지난 8월 4일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개혁의 성공조건과 과제'라는 제목의 국방개혁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휘체계를 작전 중심으로 단순하게 변화시키고, 군조직이 비대화·행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절약되는 자원을 하부구조인 전투부대로 돌리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작년 4월 29일 '천안함 46용사 영결식'.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弔辭)에서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발언은 즉각 우리 군(軍)의 보복의지를 다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이 적에 대한 보복의지를 천명했다고 해도 이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국군의 지휘구조상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의 작전(전투)부대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군참모총장은 소속 장병들에 대한 인사·교육·훈련·군수지원 등에 관한 권한(군정권)만을 갖고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307계획'에 해·공군 우려

현행 제도상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권한(군령권)을 가진 것은 합동참모의장이다. 하지만 합참의장의 경우 자기 출신 군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307계획'이다.



이경민 기자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8월 4일 국방개혁토론회에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307계획' 안에는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경영효율화, 장성 수 감축, 부대구조 개편,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병영문화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상부지휘구조 개편방안이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권(군령권)을 주도록 한 것이다. 대신 합참의장에게는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합참 소속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 등을 주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적극적이지만, 일부 예비역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이 적지 않다.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까지 줄 경우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합참의장에게 군정권까지 주면 문민통제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해·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출신 합참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경우 해·공군이 육군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4일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개혁의 성공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자, 언론인, 학생, 안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국방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똑같이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도, 그 경험을 전격전으로 발전시켰던 독일과 마지노선으로 상징되는 방어제일주의를 고집하다가 패전한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역사는 변화하지 않으면, 또 시대상황에 맞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조선DB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국군은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해병1사단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합동으로 경북 포항시 독석리 해안 일대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첫째, 2015년 전시(戰時)작전지휘권 전환에 따라 우리 군의 합동작전 지휘체계를 강화시키고, 작전 중심의 단순한 지휘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818계획' 이후 군정·군령이 이원화되어 왔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 군조직이 비대화되고, 기능이 중복되고, 결국 행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셋째,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시킴으로써 비대화된 상부지휘구조를 슬림화시키고 군단 중심의 전술제대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김관진 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은 우리 군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것"이라면서 "국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307계획'이 나온 이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이 "국방개혁의 기본 목적은 북침을 위한 선제공격 작전 능력 강화"라고 비난해 온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이런 북한의 비난 태도는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군의 전쟁 지도능력, 작전기획·계획 및 수행능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의 전환' 등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북한측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규덕 실장은 "상부지휘구조에 대한 과열된 논의가 나머지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조차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절약되는 자원을 하부구조인 전투부대로 돌리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이 위협 느끼게 공세적 부대 배치 필요"

토론자로 나선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서울에, 육·해·공군 본부는 충남 계룡대에 나뉘어 있는 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안에서 '적극적 억제' 전략을 표방하면서 특전사·도하부대 등이 현재의 위치보다 남쪽으로 옮겨 가는 것은 문제"라면서 "북이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공세적으로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육군의 독식에 대한 해·공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도네시아처럼 육·해·공군 출신이 윤번제로 합참의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우리는 다문화 포용국가 "해피 투게더"

대구시, 다문화가족 1천2백명에 대구육상대회 입장권 제공

대한민국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노르웨이 총격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지만 정부는 다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이뤄 가고 있다. 오는 8월 27일 개막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이 경기관람과 거리응원을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보일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바흐릿디노바 굴랴 씨는 요즘 한국생활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굴랴 씨는 6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 이곳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이다.

"한국에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가족이 그리워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에서 못 살거 같아요. 한국이 재밌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어교육을 2년간 받은 굴랴 씨는 최근 취업도 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시 광화문관광안내소에서 러시아어관광통역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굴랴 씨는 "러시아 관광객들을 하루 평균 4명 정도 만나는데 관광안내원으로 일하는 저를 보고 매우 놀라면서 반가워한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인도네시아 출신 에코 다르미야띠 씨 역시 결혼이주여성이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맡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말을 거의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몸이 아파도 혼자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문제 상담은 머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해요."

"한국어교육 · 요리교육 등 지원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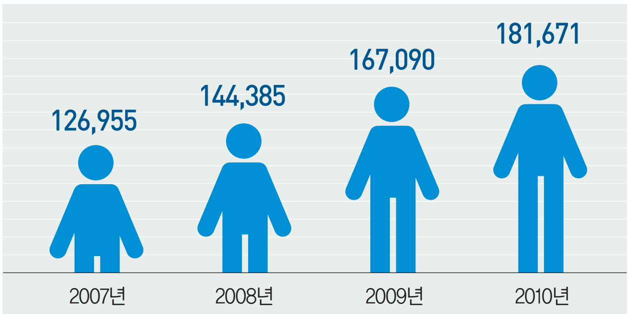
1998년 한국에 온 에코 씨는 처음에 말이 안 통해서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에코 씨는 "요즘 한국어, 요리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교육이 생기고 있어 정말 좋다"며 "저희 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프로그램으로 놀토(노는 토요일)에 아이들을 돌봐줘서 맞



박경아 기자

지난 7월 20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인 대구스타디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힘차게 트랙을 달리고 있다. 이날 대구시의 초청으로 천안지역 다문화가족 2백37명이 대구스타디움, 스포츠기념관, 허브힐즈 등 대구 시내 관광을 즐겼다.

결혼이민자 추이 (단위 : 명)



자료 여성가족부

벌이 부부인 제가 한결 부담을 덜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백20만명이다. 올 1월 기준 결혼이민자가 21만여 명, 등록된 외국인노동자는 55만여 명에 달한다. 결혼이민자가 크게 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 1월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5만여 명이다.

단일민족 국가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런 수요에 맞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 결혼준비,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 자녀양육·교육 등과 이를 총괄하는 전단계 등 크게 4단계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민아 사무관은 "올해 국제결혼의 건전화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써 열린 다문화사회로 나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제도 보완

무엇보다 국제결혼의 건전화는 우리 사회 내 시급한 문제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사기 결혼, 배우자 학대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잘못된 결혼중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 당사자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전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결혼사증제도도 개선했다. 지난 3월 법무부는 앞으로는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경제적 부양능력·혼인경력·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도 심사하도록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대구육상대회 초청받은 다문화가족들

9월 4일 마라톤경기 땐 풍물패 거리응원도



대구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광역시는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관람을 지원한다. 경기관람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의 신청을 받아 1천2백명에게 입장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장권 구입은 기업들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최규목 사무관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다문화가족도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입장권 지원을 계획했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들이 함께 경기를 즐기고 응원함으로써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전 인류가 화합하는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 기간 다문화가족의 거리응원도 이어진다. 9월 4일 열리는 남자 마라톤 경기 때 대구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풍물단 30명이 거리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4월 10일 열린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선보인 바 있다.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서미령씨는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리 풍물단이 응원 봉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며 "가족들과 경기관람도 할 예정인데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백59개에서 올해 2백개로 늘었다. 전국 시·군·구에 분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해 한국 적응을 돕는다.

지난 6월에는 '다누리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다누리콜센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10개국 언어로 한국생활 안내, 고충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육료 지원도 늘었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G

글·이제남 기자

한국 농업의 애환 서린 수원을 떠나며

"전북혁신도시서 '3차 농업혁명' 이룬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금선탈각(金蟬脫殼)'이란 말이 있다. "금빛 매미가 되려면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7월 21일 전북 전주에서 농업생명연구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전북혁신도시의 건설이 본격화한 것이다.

오는 2014년까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4개 농업연구기관이 새로운 농업수도에 자리를 잡으면, 박사급 연구원 8백명을 포함한 연구인력 3천명이 상주하게 된다.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2015년이 되면,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인구 3만명 규모의 '작지만 강한'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근현대 세계사에 2차례의 농업혁명이 있었다. 윤작법과 다수확 품종으로 대표되는 1·2차 농업혁명을 통해 농업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주도한 영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농약·비료·석유에너지의 지나친 투입에 대한 반성으로, 식품 안전성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오래된 미래'를 맞이할 때가 된 것이다.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면서 첨단산업으로 발전"

'오래된 미래'는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의 꿈이 담겨 있는 말이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했다. 하지만 1970년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가 무너져 내렸다. 농촌경제는 침체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결국 그들에겐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 바로 그것은 전통적인 문화와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올 초 농진청이 주관한 생명자본주의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산업자본에 이어 금융자본의 시대가 저물면 '생명이 생산과 창조의 자본이 되고 감동이 경제력이 되는 생명자본주의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농업의 본질적 가치는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면서 첨단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참신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감성·문화·예술과의 상호결합을 통해 농업은 전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제3차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농진청은 이제 근현대 한국농업의 애환이 서린 경기도 수원을 떠나 새로운 농업혁명의 산실에서 1백년의 역사를 다시 그리려 한다. 대한민국이 3차 농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갈 것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국의 다른 공공기관들 또한 새로운 꿈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 1백년의 역사를 함께 그려 가길 바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이 접목선인장의 발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농촌진흥청의 전북 이전을 맞이하며

“농업생명연구단지는 우리 농업의 새 전기”



김용헌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오는 2014년까지 국가 농업·식품연구기관은 전북혁신도시로 한데 모인다. 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집적하고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 농업연구기관과 식품연구기관을 전북에 집적해 미래 농생명산업을 이끌어 나갈 농업생명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낸다.



서경리 기자

2014년 부터는 이 같은 연구가 전북혁신도시에서 수행된다.

지역의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성공적인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고려할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농업의 미래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선진국 중 농업이 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농업은 세계 경제를 이끌 산업”이라며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월 라디오 연설에서 “농업이 미래 유망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2백년 농업연구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현재 농진청이 있는 수원은 조선 정조대왕이 1794년에 화성(華城) 신도시를 건설하고, 국영농장인 서둔전과 서호라 불리는 축만제를 건설하는 등 최고의 농업기술을 투입해 국가부흥의 시초를 닦던 곳이다.

농진청의 이전은 전북에서 새로운 농업연구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 있어 농업강국 건설을 위한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수준 높은 정주환경 제공을”

셋째,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융합이다. 연구단지는 농업과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이 한데 융합된 신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 주민들이 거버넌스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삶의 질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정주(定住)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모두 한마음이 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농업생명연구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농업강국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아일보





강원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 막바지 훈련 중인 마라톤 남자 대표 선수들. 왼쪽부터 황준석, 황준현, 김민, 이명승(왼쪽 사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길을 달리고 있는 마라톤 여자 대표 선수들. 왼쪽부터 정윤희, 박정숙, 최보라, 이숙정, 김성은.

女장대높이뛰기·마라톤·경보 메달 기대하시라

47개 종목 중 34개 종목 출전할 한국대표 58명 확정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단 규모가 5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준기록 통과자와 주최국 어드벤티지로 출전자격을 가진 선수들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이들 한국대표 선수는 8월 27일부터 9일간 열리는 대구육상대회 47개 종목의 경기 가운데 34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된다.

마라톤의 끈기와 경보의 의외성에 주목하라! 8월 27일 개막하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 선수단 규모가 확정되면서 마라톤과 경보 등 한국의 메달 획득 가능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마라톤기술위원회 등을 열어 이번 대구육상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 선수들을 선발한 결과 우리 대표선수단 규모가 58명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기준기록 A' 통과 선수(남자 12, 여자 5명)와 '기준기록 B' 통과 선수(남자 3, 여자 4명), 그리고 주최국 어드벤티지로 출전자격을 갖게 된 선수(남녀 22명)를 포함하는 규모.

기준기록 A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일반적인 기준기록이며, 기준기록 B의 경우 특정국가에 기준기록을 넘는 선수들이 몰린 종목의 경우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출전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준기록 A에서 한 단계 낮춘 기준기록이다. 예를 들어 남자 100미터의



동아일보

'기준기록 A'가 10초18이라면 '기준기록 B'는 10초25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담당 방석원씨는 "우리나라가 주최국 어드벤티지로 기준기록 통과선수가 없는 종목에 대해 남녀 각 1명이 출전 자격을 갖고 있지만 세계선수권대회와 기록 격차가 심하게 나는 종목은 선수를 출전시키기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트랙·필드·로드레이스 등 3개 분야의 대구육상대회 47개 종목 중 34개 종목에 우리 선수가 출전한다고 설명했다.

주최국 어드벤티지 22명 포함… 15일 엔트리 마감

이번에 확정된 한국대표 선수단 명단은 대구육상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최종엔트리 마감일인 8월 15일까지 제출한다.

대구육상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단의 목표는 10개 종목에서 10위권에 진입하는 이른바 '10-10 프로젝트'다. 최근 간판급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에다 세계적인 수준과의 격차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마라톤, 경보 등에서 선전을 기대하며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대표 선수들의 출전 종목 가운데 메달 전망이 가장 밝은 것은 남녀 대표선수 전원이 '기준기록 A'를 통과한 마라톤이다.

한국 남자마라톤의 간판스타인 지영준(30·코오롱)이 부상으로 이번 대표 선발에서 탈락한 것은 아쉽지만, 그를 대신해 정진혁(31·건국대), 황준현(24·코오롱) 이명승(32·삼성전자) 등이 대회 마지막 날(9월 4일) 열리는 남자마라톤 경기에서 단체전 메달의 희망을 쏘게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에 든 적이 없으나 남자마라톤 단체전에서는 2007년 오사카 대회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한 적이 있다.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성적으로는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이 선수 시절인 1993년 슈투트가르트 대회 남자마라톤에서 4위에 오른 성적이 역대 최고다.

"경보는 의외성 많아 선전 기대할 만하다"

그동안 남자마라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여자마라톤도 주목할 만하다. 마라톤 풀코스 완주 두 번 만에 2시간30분대를 돌파한 김성은(22·삼성전자)을 비롯해 정윤희(28·대구은행), 이숙정(20·삼성전자) 등 여자 마라토너들도 메달 도전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여자 마라토너 가운데 가장 유망한 김성은의 개인 최고기록도 2시간29분27초로 2시간25분 이내의 세계정상권과는 차이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마라톤에 소외돼 온 종목에서 벗어나 '변방의 반란'을 도모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전문가들이 남녀 마라톤에서 메달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은 홈경기의 이점과 더불어 대구의 무더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황영조(41) 대한육상경기연맹 마라톤기술위원은 "오사카 대회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 선수들의 기록이 좋았다기보다 워낙 더운 날씨여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성적이 저조했다"며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 역시 기온이 높고 습기가 강한 지역이어서 우리 선수들이 한 번 해볼 만하다"고 선전을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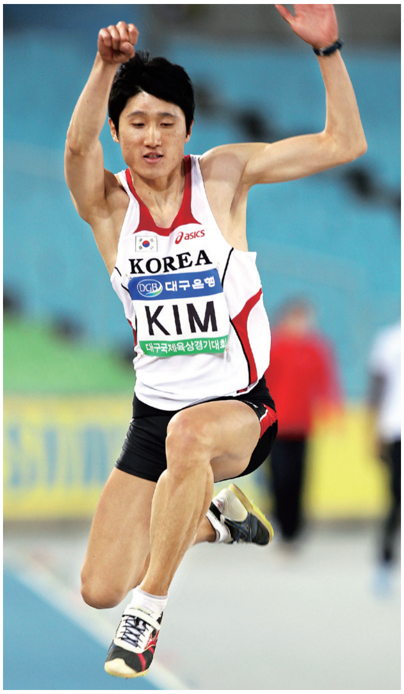
마라톤과 경보 종목 선수선발에 참여했던 황 위원은 "마라톤 이외에 경보의 '의외성'에도 기대를 걸 만하다"고 말했다.

경보의 경우 기록에 욕심을 내 자칫 속도를 높이다 보면 달린 것으로 간주돼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도 파울 판정을 받아 실격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남자 20킬로미터 경보에서는 1시간19분31초로 기록이 가장 좋은 김현섭(26·삼성전자)을 필두로 박칠성(29·국군체육부대), 변영준



조선DB



조선DB

경보 20킬로미터에 출전하는 김현섭(왼쪽)과 남자 멀리뛰기의 김덕현.

(27·대구시청)이 나선다. 남자경보 50킬로미터 대표로는 20킬로미터에도 뛰는 박칠성 외에 임정현(24)과 김동영(31·이상 삼성전자)이 발탁됐다. 여자경보 20킬로미터에서는 전영은(23·부천시청)이 출전한다. 마라톤과 경보 등 로드레이스 다음으로 기준기록 통과자가 많은 분야가 필드 종목이다.

‘한국의 미녀새’ 최윤희에 필드종목 유일한 톱10 기대

필드에서는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한국의 미녀새’로 불리는 최윤희(25·SH공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윤희는 이번 대구육상대회의 여자 필드 종목에서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할 한국 선수로 꼽힌다.

그가 지난 6월 10일 작성한 한국기록(4.40미터)은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의 결선 진출 커트라인이었던 4.50미터(독일의 크리스티나 가드시에프 기록)와 불과 10센티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남자 필드에서는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두 종목에 도전하는 김덕현(26·광주시청)이 자신의 보유한 한국기록 경신과 결승진출을 목표로 경기에 나선다. 김덕현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 분야 간판스타다.

남자 창던지기의 박재명(30·대구시청)과 정상진(27·용인시청)은 우리나라 창던지기 1, 2인자로 결승진출을 노린다. 한국기록 보유자인 박재명은 2008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동메달, 2010년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밖에 트랙 종목에서도 남자 110미터허들의 박태경(31·광주시청)과 여자 100미터허들의 정혜림(24·구미시청)이 신기록을 향한 도전에 나서며, 남자 400미터계주팀도 결승진출을 목표로 달리게 된다. 여기에서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한 우리 대표선수들이 대구육상대회에서 어떤 이는 메달을 향해, 어떤 이는 새로운 기록을 향해 뛰고 달리게 될 것이다.

대구육상대회에서는 8월 27일 아침 9시 열리는 여자마라톤 경기를 시작으로 남자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9월 4일까지 9일간 수많은 선수의 땀과 눈물과 감동의 열전이 펼쳐진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www.daegu2011.org
☎053-803-9000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기준기록 통과 종목과 선수들

성별	종목	선수명	기록
남자	마라톤	정진혁	2시간 9분 28초
		황준현	2시간 10분 43초
		김민	2시간 13분 11초
		이명승	2시간 13분 25초
		황준석	2시간 16분 22초
	110미터 허들	박태경	13초48
	멀리뛰기	김덕현	8.11미터
	세단뛰기	김덕현	16.99미터
	창던지기	박재명	80.19미터
		정상진	80.38미터
	400미터 계주	대표팀	39초04
	20킬로미터 경보	김현섭	1시간 19분 31초
		변영준	1시간 22분 7초
		박칠성	1시간 22분 28초
	50킬로미터 경보	박칠성	3시간 50분 11초
		임정현	3시간 53분 5초
		김동영	3시간 53분 52초
여자	마라톤	김성은	2시간 29분 27초
		정윤희	2시간 32분 9초
		이숙정	2시간 34분 1초
		최보라	2시간 34분 13초
		박정숙	2시간 36분 11초
	100미터 허들	정혜림	13초11
	장대높이뛰기	최윤희	4.40미터
	포환던지기	이미영	17.51미터
	20킬로미터 경보	전영은	1시간 37분 24초

100m · 200m · 400m 계주 3관왕 노리는 우사인 볼트

“지금 내 머릿속에는 대구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인간, ‘번개’라 불리는 사나이. 자메이카가 낳은 세계적인 육상 영웅 우사인 볼트(25)를 지난 7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래디슨블루 워터프런트 호텔에서 만났다. 볼트는 이틀 뒤 열린 IAAF(국제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200미터 결승에서 20초03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볼트는 “영국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오는 8월 16일쯤 한국으로 떠나 일찌감치 적응 훈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에 갈 때까지 오로지 훈련, 훈련, 훈련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는 대구밖에 없다”고 했다. 볼트의 올해 100미터 개인 최고 기록은 9초88이다. 작년에 아킬레스건과 허리를 다친 탓에 자신의 세계기록(9초58)은 물론 경쟁자인 아사파 파월(자메이카)의 올해 최고 기록(9초7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볼트는 “걱정 안 한다. 지금 아주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에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최고”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대구 국제대회에 나와 한국 팬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던 볼트는 “훌륭한 경기장과 친절했던 대구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AFP연합

지난 7월 30일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 육상대회 200미터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사인 볼트가 한 여성 팬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자메이카도 더워 대구 무더위 문제 안 돼“

그에게 대구 스타디움 트랙이 붉은 폴리우레탄에서 파란색 몬도 트랙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볼트는 “자메이카에서도 파란 트랙에서 훈련했다. 고향에서 뛰는 느낌일 것 같다”고 반색했다. 대회 기간 대구의 늦여름 무더위에 대해선 “자메이카도 만만치 않게 덥다. 문제없다”고 말했다.

볼트는 세계 최고 육상 영웅답게 자기관리도 철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스톡홀름에 도착한 이후 훈련 시간 외엔 거의 호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시내 구경은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 관광은 훗날 은퇴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트는 식사도 거의 호텔에서 해결하고 있다. 미리 섭외한 자메이카 출신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호텔 방으로 가져와 먹는다. 볼트는 “얌(yam · 참마의 일종으로 자메이카에서 많이 나는 뿌리식물)과 채소 요리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했다. 볼트의 매니저인 리키 심스 씨는 “대구에서 볼트에게 자메이카 음식을 해 줄 요리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혹시 마땅한 사람을 찾아봐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기도 했다.

볼트의 인기는 대단했다.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 앞서 열렸던 공식 회견은 선수 10명이 한 사람당 10분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주인공인 볼트의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다.

그의 차례가 오자 한적했던 회견장이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볼트는 회견이 끝나고 호텔에 모여 있던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자 불편한 내색 없이 친절하게 응했다. 사진 촬영도 흔쾌히 허락했다. 볼트는 스톡홀름의 아란다 공항에서 시내로 올 때 택시나 승용차 대신 공항철도를 타 화제를 모았다. 그는 “공항철도가 빠르고 편하다”고 넉살 좋게 웃었다. 한국에서도 공항철도와 KTX를 타고 이동하는 ‘번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G

글 · 김동현 기자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대구세계육상조직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 행사가 대구 도심에서 열리고 있다.

'문화예술도시 대구' 세계에 알린다

도심공원·골목·지하철역 등 도시 전체가 무대… 경주에선 문화엑스포도

〈세계적인 건각들의 육상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즐기세요!〉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달구벌에서 열리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을 전후해 대구 곳곳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경주에선 8월 12일부터 두 달간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린다.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대구에는 2백12개국에서 6천여 명의 외국인이 몰려온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및 임원이 3천5백여 명, 이들을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이 2천5백여 명에 달한다.

1994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의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 후 매년 상주인구의 10배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대구시(市)도 이번 기회에 무형자산 가치상승을 통한 대구의 글로벌화와 관광명소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는 대구의 환경과 생활, 문화를 소개하는 여러 문화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기간 대구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로는 ▲도심문화행사 ▲세계육상대회 공식행사 ▲각 구·군별 문화행사 ▲연계 문화행사 등 다양하다. 세계육상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회 기간 중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도심문화행사에는 무대가 따로 없다.

개회식선 다듬이질 응용한 환영 퍼포먼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도심공원, 동성로 등 대구시내 번화가는 물론 골목,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상점 앞 등이 모두 무대로 변신한다. 공연물의 내용도 클래식, 무언극, 오케스트라, 발레, 마당극,

대구시, 숙박·음식업소 종합안내서 발간



대구시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일반 숙박업소에 머무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음식업소 안내실무 책자' 5백부를 발간했다.

안내책자에는 육상대회 개요, 종목별 경기장소 및 일정, 입장권 요금 및 판매 안내, 숙식안내 종합상황실 운용 요령, 구·군별 숙박업소 인근 조식업소 및 음식점 현황이 실려 있다.

또 편의점, 패스트푸드 판매점, 제과점 현황, 야간 응급진료 병원, 외국인 진료협력 의료기관 현황, 뷰티투어클럽 참여업소, 관광호텔 현황, 교통안내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책자는 구·군 숙식 종합상황실, 숙박업소, 관광안내소, 기타 유관기관 등에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믹서커스쇼, 인형극, 댄스 등 다양하다.

대구시는 이번 도심문화행사를 경기일정, 관광, 교통, 숙박정보를 안내하는 문화행사장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경기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지원하는 문화행사로 구성했다.

또 대구 예술단체가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에 출연해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역량을 보여주며, 대구 도심의 특성·잠재력을 세계화하는 문화행사로 꾸몄다.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세계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이내믹한 육상경기도 관람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된 문화예술도시 대구를 많이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간 경주에서는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천년의 이야기- 사랑, 빛, 그리고 자연'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 김에 고도(古都) 경주를 찾아 신라 1천년의 전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개막식은 8월 11일 오후 7시 행사장 백결공연장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정동극장이 제작한 〈미소–신국의 땅〉 공연과 터키국립공연단의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기간 내내 신라의 역사와 전설을 모티브로 한 각종 공연, B-Boy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세계 춤 페스티벌, 세계전통문화관, 세계화석박물관 운영 등 외국과의 문화교류, 전국 여러 지방이 참여하는 시·도 문화의 날 행사도 계속된다. G

글·배진영 기자

대구육상선수권 관련 문화축제

구분	주관 또는 공연명	일시	장소
도심 문화 축제	거리예술축제	8월 28일~9월 3일	동성로일대
	무대예술축제	8월 24~31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
	공원형 야외극	8월 28일~9월 3일	2·28중앙공원
	난버벌축제	8월 28일~9월 3일	중앙파출소 앞
	명품국악공연	8월 28일~9월 3일	경상감영공원 징청각 특설무대
	작고작가 및 원로작가 우수작품전시회	8월 24일~10월 9일	대구문학관 예정건물
	Media Art전	8월 28일~9월 3일	시청광장 특설무대
	플레이 스마트 뮤직 페스티벌	8월 29일~9월 3일	EXCO 1층 전시관
	글로벌 디지털 육상게임	8월 8일~9월 4일	온라인상
세계 육상 대회 공식 행사	IAAF총회 개막공연	8월 23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세계육상대회개막 전야제	8월 26일	두류공원 야구장
	개회식	8월 27일	대구스타디움
	선수촌 문화행사	8월 20일~9월 4일	선수촌
	Loop Festival	8월 27일, 9월 4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6개소
기타 행사	제4회 대구국제보디 페인팅페스티벌	8월 27~28일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2011승시	9월 1~5일	팔공산 동화사 옆 씨네80 자동차극장
	해설이 있는 오페라갈라 콘서트	8월 27일	지하철2호선 대공원역
	오페라 '박쥐' 공연	9월 1~3일	오페라하우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요행사

공연명	일시	장소
신국의 땅, 신라	8월 12일~10월10일	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예술축제		문화센터 공연장
세계 춤 페스티벌		백결공연장
B-Boy 페스티벌		백결공연장
리듬 일레븐 스트리트 퍼포먼스		백결공연장 및 행사장 내 주동선
인형극장		원화극장
대한민국대학생 춤페스티벌	9월 18일~10월 9일	천마공연장
경주타워멀티미디어쇼	8월 12일~10월 10일	주작대로 및 왕경숲 일원
신라복식체험		천마의 궁전 외부


상습 침수지역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의 신륵사 앞 강변공원. 한강 준설 덕분에 올여름 침수피해를 입지 않아 이곳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고추와 파 등이 튼실하다.

"물폭탄에도 발 뻗고 잤어요… 40년 만이죠"

850mm 장맛비에도 큰 피해 없어… 강천보 하류지역 침수 피해 '0'

올여름 유례없는 장마가 중부지방에 큰비를 쏟아냈다. 하지만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에서는 물흐름을 막고 있던 흙을 치워 낸 준설 효과로 인해 큰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예년 큰비 올 때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4대강 유역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상습침수지역을 둘러보았다.

탱탱한 토란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토란밭을 성곽처럼 둘러싸고 우뚝 서 있는 옥수수 줄기 곳곳이 도톰한 게 열매를 품은 게 틀림없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신륵사와 여주대교 사이 강변공원에 누군가 가꿔 놓은 텃밭 모양새가 기특하다. 신륵사 앞에서 시작해 여주대교 아래까지 이어지는 강변도로 아래 공원에서는 올해 같은 장맛비에도 토란이며 고추, 콩, 파 등속이 물에 쓸린 흔적 없이 알뜰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거야 손바닥만 한 텃밭인데 재미삼아 기르는 거지."

지난 8월 3일 낮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친구들과 함께 강변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김용화(77·여주읍 오학리) 어르신. 텃밭 가꾸는 이와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지만, 같은 농부의 마음인가. '무단으로' 이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이를 은근히 두둔했다.

이렇게 하천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천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 이곳 강변에서도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허가받고 농사를 지을 리는 만무하다. 길고 비 많은 올해 장마에 끄떡없이 자라고 있는 이들이 신통했다. 더구나 비만 좀 왔다 하면 만날 침수되는 신륵사 앞 강변 아닌가.

상습침수 강변 텃밭엔 싱싱한 채소 '가득'

"여기서 장사한 지 40년쯤 됩니다. 여름만 되면 홍수 걱정이었죠. 2002년 홍수 때도 그렇고, 우리 식당 아래 강변도로까지 한강물이 올라왔죠. 강변도로 아래 저 강변공원은 매년 물에 잠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기 강가에 나 있는 풀 말고는 물에 잠기지 않고 멀쩡

했다니까요."

이곳 강변도로 위쪽으로 도로변 식당가 한 횟집 '명성회관'의 정유상 사장은 남한강을 바라보며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열심히 설명했다. 가만 보니 텃밭뿐만 아니다. 이날 오후에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아예 텐트까지 치고 나무그늘을 즐기는 나들이객들도 있었다.

이곳 강변공원은 완만한 경사가 강으로 이어지는 자연제방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던 흙더미를 걷어 내니 이곳 강변공원까지 강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02년 홍수 때에 침수피해를 입었던 여주대교 인근 천송리와 현암리 지역은 올해 유난스러운 장마에도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본·지류 합류 삼합리도 상습침수지역서 해방

사실 기록관측 사상 전국적으로 두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올여름, 여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주대교 상류지역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에 따르면 여주에서는 지난 6월 22일~7월 3일 사이 442.8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평균수위 3미터(해발 기준)인 강천보 수위가 7월 4일 4미터84센티미터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8월 3일 현재까지 이번 장마기간 중 총 850밀리미터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준설로 수위가 낮아져 강천보 아래쪽 여주 지역 내 상습 침수지역 어느 한 곳도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강천보를 지나 상류로 올라가면 용인에서 북상한 청미천이 여주군 점동면의 도리와 삼합리 사이를 지나 한강 본류와 합류한다. 청미천과 마주보는 한강 북쪽의 여주군 강천면에서는 섬강이 한강으로 흘러든다. 두 강이 만나는 동네 이름이 3개의 강이 만난다 하여 '삼합리'다. 이곳도 올해 장마에는 침수에서 해방됐다.

"여기 한강변 제방이 완공된 게 지난 5월쯤이에요. 이 마을에 40년째 사는데, 비가 와도 올여름 처음으로 발 뻗고 자 보네요. 4년에 한 번씩은 마을회관과 우리 집 사이 논밭이 다 침수돼 우리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배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도리노인회 이강원(73) 회장의 집은 마을회관에서 건너다 보이는 강변 구릉지 위에 있다. 이회장집과 마을회관과의 사이는 지대가 낮은 데다 개울이 있다 보니 한강물만 불어나면 강물이 차오르고, 물이 잘 안 빠져 농사를 망치곤 했다.

도리로 오다 보면 마을 입구 오른쪽은 마을회관, 왼쪽은 '새마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1972년 대홍수 당시 마을회관 앞마당까지 침수되는 큰 홍수피해를 입는 바람에 저지대에 살던 주민 15가구가 옮겨가 살고 있는 산자락이 '새마을'이다.

"홍수걱정은 없지만 농작물 위해 이제 비 그쳐야지"

"홍수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강변 경치 좋죠, 인심 좋죠, 물 맑고 공기가 좋아 밤이면 반딧불이도 볼 수 있어요."

'청정마을'이란 점에 착안해 도리는 '늘향골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여름 6백명가량이 다녀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요즘 홍수가 아니라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 걱정이다.

"비가 너무 와서 습하니까 고추는 탄저병이 걸리고, 막 열매 맺기 시작한 깨도 타들어 갑니다. 가지도 곰팡이에 시달리고 한창 자라야 할 고구마, 콩도 누렇게 변하고 있어요."

유난스레 긴 장마,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은 모두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여전히 찬반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의 농촌 풍경은 찬반논란에 매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기후변화란 과제는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방대한 문제이고, 우리는 그러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다.

"홍수 걱정은 덜었지만 비가 빨리 그쳐야지요. 그래야 농작물도 살고 우리도 살지요."

갈수록 변화무쌍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박한 농부 이 회장의 바람이었다. 더욱이 나날이 고령화되는 우리 농촌이다. 도리도 전체 주민 1백8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회 회원이 40명. 4대강살리기로 한숨 돌린 우리 농촌은 더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청미천과 섬강이 한강과 만나 침수가 잦았던 삼합리 방향을 가리키는 이강원씨. 이씨는 요즘 홍수 시름을 던 대신 변덕 많은 기후 때문에 걱정이다.





전남 나주시 왕곡면 영산강 유역.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준설이 시행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

깊어진 4대강… 본류지역엔 범람 없었다

낙동강 수위 2~3미터 낮아져… 상습침수 화원유원지 올해는 멀쩡

한마디로 기록적인 장마였다. 비에 관한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과거 장마 때와 비교해 볼 때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강바닥 준설로 강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의 낙동강변에 위치한 화원유원지는 아기자기한 수목원으로 유명하지만 장마철이면 상습적인 침수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7월 9, 10일 양일간 대구 지역에 290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린 와중에도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낙동강의 바닥을 4미터 이상 준설해 수위가 2~3미터 정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화원유원지는 지난 2006년에도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비에도 침수피해를 면한 것이다. 달성군은 2006년 7월 장마 때 277밀리미터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올 7월 장마 때 강우량은 290밀리미터였다.

화원유원지뿐 아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 곳곳에서 기록적인 비를 내리게 한 올해 장마가 각종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시행한 강바닥 준설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어진 올 장마기간은 비 온 날이 예년보다 1주일이나 늘어난 데다 강우량도 크게 늘었고 폭우도 잦았다. 6월 22일~7월 16일의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밀리미터로 예년의 2.5배에 달한다. 기상관측 이래 두번째로 많다.

각종 기록을 경신한 올 장마

또 시간당 3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는 전국에서 65차례 쏟아져 예년보다 3.5배가량 많았고, 열흘 연속 장맛비도 관측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렇게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위는 준설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7월 홍수량과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한강(여주) 2.54

올해와 2002년 피해지역 비교

한강 본류 및 지류(섬강·청미천)부근



낙동강 본류 및 지류(감천·금호강·황강·남강)부근



출처 국토해양부

미터 ▲낙동강(상주) 3.78미터 ▲금강(연기) 3.36미터 ▲영산강(나주) 2.13미터 등으로 2~4미터가량 수위가 저하됐다.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져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본류 영향을 받는 지류 구간의 평균 저감 수위는 ▲섬강(한강 지류) 0.5미터 ▲황강(낙동강 지류) 1.3미터 ▲미호천(금강 지류) 0.5미터 ▲황룡강(영산강 지류) 0.6미터 등이었다.

본류·지류 동반 홍수위 저하는 본류를 먼저 정비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효과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지류 우선 정비'의 경우로는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장마로 호우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됐지만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10분의 1 수준이다. 하천사업 특성상 큰비에 공사용 임시물막이 유실 등 일부 피해는 있었지만, 이는 주민과는 무관한 공사장 내 피해였으며, 신속 복구 가능한 수준의 피해다.

한편 4대강살리기는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 중이다. 7월말 현재 4대강 본류사업 전체 공정률은 86퍼센트. 그동안 강바닥에 퇴적된 토사 4억3천만세제곱미터(남산 8개 반)를 준설해 홍수를 흘려보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 올해 말이면 4대강을 종주하는 수변 자전거도로(1천5백92킬로미터), 수변 생태공원(2백25개소), 체육·휴게시설 등의 조성이 끝난다. 달라진 4대강을 온 국민이 직접 보고 즐기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G

글·박경아 기자

"이번주 4대강 수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금남보 구역부터 수질예보제 가동

4대강 수질을 1주일마다 일기예보처럼 예보해 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준공에 맞춰 16개 보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통신(IT) 기술과 수치모델링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수질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8월부터 세종시의 금강 금남보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수질예보는 기상상태를 예측하는 일기예보와 유사하다. 4대강의 본류와 지류에서 관측되는 유량과 수질자료를 하천에서의 흐름과 오염물질의 변화를 묘사하는 수치모델에 입력해 장래의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수질예보제 도입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한 후 수질예보를 위한 16개 보의 수질관측망 확충,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첨단 수질예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확보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수질예보 시스템은 네덜란드의 수자원 예보전문기관인 델타레스(Deltares)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4대강에 특성화된 수질예보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수질예보 시스템은 수질악화가 예측되었을 때 최적의 수질개선 방안을 찾아 주는 시나리오 모의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류 하천에 대해 클로로필-a에 대한 수질예보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적인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선도적인 사례다.



2011 대한민국
스마트 미디어 앱 공모전

공모부문 : 앱 기획 부문 | 앱 개발 부문

공모주제 : DB를 활용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용 앱 기획 및 개발

접수마감 : **2011. 9. 9(금) 까지**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smartapps.or.kr**)를 통한 접수

시상내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총 18종

앱 기획 부문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3명	각 100만원
	우 수 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4명	각 50만원
앱 개발 부문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명**	**각 500만원**
	최우수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3명	각 300만원
	우 수 상	KT 사장상	1명	200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	1명	200만원
		NHN 사장상	1명	200만원
		전자신문 사장상	1명	200만원

문 의 : 공모전 사무국 02-6911-6550, e-mail : smartapps@smartapps.or.kr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 관 KDB Korea Database Agency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후 원 kt Microsoft NHN 전자신문

www.smartapps.or.kr

기획특집

대한민국을 살찌울 우리 강소기업을 만나보세요

아프리카 사막에 가면 '가젤'이란 동물이 있습니다. 영양류의 일종으로 메마른 초지를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가젤은 우아하고 매력적이란 뜻도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수년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한 기업을
'가젤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젤형 기업은 모든 기업인이 선망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젤 같은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3년 연속 20퍼센트 이상 성장한 기업이 42개에 이릅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1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기업은 3백15곳이나 됩니다.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도 세 개나 됩니다.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조선DB

바이오신약업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오른쪽)과 연구원들이 신약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3년 연속 20퍼센트 이상 성장한 슈퍼 가젤형 기업으로 선정됐다.

'벤처천억기업' 3백15곳… "황금알 낳다"

고용도 지난해 25퍼센트 2만여명 늘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주역으로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우리나라는 한동안 '벤처 불모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결과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1천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기업은 3백15곳이나 됐다. 특히 이들 벤처천억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빠른 해외시장 진출로 일자리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벤처천억기업'들의 성공 DNA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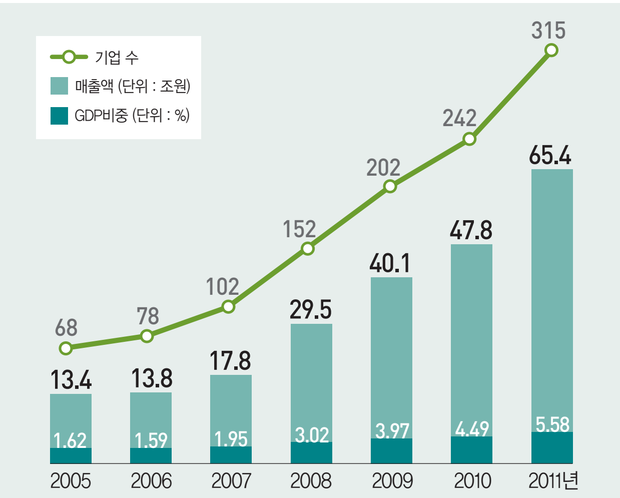
'매출 천억원'은 중소 벤처기업들의 꿈이다. 1조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디에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1조4천4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디에스는 삼성전자에 백라이트유닛(BLU)이란 디스플레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 LCD TV에 들어가는 백라이트유닛의 38퍼센트는 디에스가 생산한 제품이다. 삼성전자 LCD TV가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하자 디에스 역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디에스와 같이 지난해 매출 1조원을 올린 벤처기업은 3개가 탄생했다. 1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벤처천억기업'도 모두 3백15개에 달했다. 지난 2009년(2백42개)에 비해 1년 만에 무려 73개나 증가한 수치다. 창업 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대 기업 반열에 오른 벤처기업도 85개나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20퍼센트 성장한 '슈퍼 가젤형'도 42곳

슈퍼 가젤형 벤처기업은 모두 42개가 탄생했다. 슈퍼 가젤형 벤처는 3년 연속으로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급증한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14개)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이 12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종택 중기청 벤

벤처천억기업 매출액 및 GDP 비중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천억 부문별 수상 기업

시상명	수상기업	주생산품
매출액 최고기업상	디에스	BLU제조
수익성 최고기업상	네오플	게임S/W
고용창출 최고기업상	이엘케이	터치패널제조
매출신장 최고기업상	세화아이엠씨	금형제조
매출액 우수기업상	엔에이치엔	인터넷포털
	태산엘시티	BLU제조
수익성 우수기업상	셀트리온	의약품
	엔씨소프트	게임S/W
고용창출 우수기업상	YBM시사닷컴	어학콘텐츠서비스
	서울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매출신장 우수기업상	휴맥스	셋톱박스제조
	카페베네	커피프랜차이즈

자료 중소기업청

처정책과 사무관은 "IT분야와 모바일 산업 활황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슈퍼 가젤형 기업의 평균 매출은 2천2백43억원으로 다른 벤처천억기업(2천42억원)보다 높았다. 영업이익도 다른 벤처에 비해 2.2배 많았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5.1퍼센트로 대기업(1.5퍼센트)과 중소기업(0.8퍼센트)을 압도했다. 바이오신약업체 셀트리온은 대표적인 슈퍼 가젤형 기업이다. 지난 2008년 8백36억원에서 1천4백55억원(2009년), 1천8백9억원(2010년)으로 3년 연속 20퍼센트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

빠른 성장세로 벤처천억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터치패널을 생산하는 이엘케이는 일자리 창출 우수상을 받았다. LG전자와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에 터치패널을 공급하는데, 일감이 폭주해 지난해 모두 1천2백5명의 직원을 추가로 신규채용했다.

벤처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1만2천4백96명. 전년(8만9천7백49명)에 비해 25.3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평균 고용증가율(12.65퍼센트)도 대기업(2.26퍼센트)의 5.6배, 일반 중소기업(4.99퍼센트)의 2.5배에 달했다.

벤처천억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벤처천억기업의 총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8퍼센트로 전년(4.49퍼센트)에 비해 24.3퍼센트나 증가했다. 특히 벤처천억기업의 전체 매출은 65조원가량으로 삼성(1백63조원), 현대차(96조원), SK(95조원), LG(95조원) 같은 대기업에 이어 다섯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성공요인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한 발 앞선 세계시장 진출에서 찾고 있다. 실제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2.8퍼센트로 대기업(1.5퍼센트), 중소기업(0.8퍼센트)보다 높았다. 슈퍼 가젤형 벤처의 연구개발 비율은 5.1퍼센트에 달했다. 이종택 중기청 사무관은 "연구개발 투자가 고속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 해외시장 · 정부지원 삼박자

특히 벤처천억기업 가운데 무려 77.6퍼센트는 해외에서 매출을 올렸다. 해외에서 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42.6퍼센트에 달했다. 국내에서만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매출증가율(32.8퍼센트)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치다. 해외시장에 일찌감치 눈을 돌린 것이 빠른 성공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도 벤처천억기업으로의 성장에 디딤돌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천억기업 가운데 41퍼센트에 달하는 1백30개사가 평균 47억원가량의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85개사가 업체당 평균 3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77개사는 평균 2억7천만원가량의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영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기술혁신과 세계 진출을 하는 기업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보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벤처천억클럽에 신규 진입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벤처기업의 세계 진출 지원과 유망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동훈 기자

LCD TV 부품 만들어 '매출 1조클럽' 가입

디에스·태산엘시디, 기술력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동반성장 성공모델로

백라이트유닛을 생산하는 디에스와 태산엘시디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 벤처기업 반열에 올랐다. 백라이트유닛은 LCD TV의 핵심부품. 국산 LCD TV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 삼성전자에 백라이트유닛을 공급하는 두 회사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커 나가는 동반성장 사례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디에스(DS)는 지난해 처음으로 벤처기업 1조 클럽에 가입했다. 경기도 동탄에 생산공장을 둔 디에스는 LCD TV용 백라이트유닛(BLU)을 생산하고 있다. 백라이트유닛은 액정화면 뒤에서 빛을 방출하는 장치. LCD 액정화면은 화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한다. 백라이트유닛은 빛의 투과량과 색깔을 조절해 LCD TV를 볼 수 있게 하는 핵심부품이다.

전 세계 LCD TV시장 1위를 달리는 삼성전자 LCD TV에 달린 백라이트유닛의 38퍼센트는 디에스가 공급한 제품이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디에스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디에스는 1998년 백라이트유닛을 생산한 지 4년 만인 2002년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매출 1조4천4백25억원을 올리며 고속성장하고 있다.

박주혁 디에스 기획팀 과장은 "백라이트유닛은 LCD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라 대기업과 긴밀한 협조 아래 생산을 진행해 왔다"



조선DB

디에스와 태산엘시디에서 생산하는 백라이트유닛은 LCD TV의 핵심부품이다. 하얀색 방진복을 착용한 국내 한 전자업체의 연구원이 LCD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청

이승규 디에스 회장(오른쪽)이 지난 7월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벤처천억기업' 시상식에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매출부문상을 받고 있다.

2010년 매출액 상위 벤처기업 (단위: 억원)

순위	기업명	주생산품	매출액
1	디에스	백라이트유닛	1조4천4백25
2	엔에이치엔(NHN)	포털 및 인터넷서비스	1조3천백25
3	태산엘시디	백라이트유닛	1조2천5백35
4	삼동	에나멜 동선 및 평각선	8천9백96
5	휴맥스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8천4백28
6	서울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8천3백90
7	유라코퍼레이션	와이어링하네스	8천2백89
8	대창	황동봉	7천9백15
9	엠케이전자	본딩와이, 솔더볼	7천4백9
10	심텍	모듈 PCB	5천7백66

자료 중소기업청

며 "끊임없는 생산혁신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좋은 기법을 이어받기도 했고 서로 나누면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디에스를 이끄는 사람은 이승규(67) 회장이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지낸 이 회장은 1998년 동산광전(디에스의 전신)을 창업해 독립했다. 이 회장은 창업 전 "기존 디스플레이 시장이 장차 LCD로 전환되면 백라이트유닛이 필수적"이란 판단으로 백라이트유닛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았다.

이승규 회장은 중국 시장 진출도 일찌감치 결정했다. 디에스는 지난 2005년 1천5백20만 달러를 들여 중국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에 현지법인 '디에스광전'을 설립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키코(KIKO)사태로 한때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2009년에 중국 '제2공장' 투자를 단행했다.

과감한 연구개발 · 발빠른 해외진출 승부수

1천3백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높다. 특히 '디에스어린이집'은 디에스의 자랑거리다. 박주혁 과장은 "사내 어린이집은 주변 어린이집에 비해 비용이 3분의 2 정도"라며 "밤늦은 잔업과 휴일 특근 때도 직원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출근해 자녀들을 관리해 줘서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디에스 회장은 "회사의 최고덕목은 창의력"이라며 "창의적인 기술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과감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태산엘시디(LCD)도 디에스, NHN과 함께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태산엘시디 역시 백라이트유닛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업체다. 태산엘시디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1조2천5백35억원. 충남 아산 탕정과 경기도 평택 지제와 칠괴 공장에는 모두 1천6백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태산엘시디를 이끄는 사람은 최태현(64) 대표다. 경북대 물리학과를 나온 최 대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삼성반도체, 금성반도체(현 하이닉스)를 거쳐 1983년 태산엔지니어링(태산엘시디의 전신)을 창업했다. 삼성반도체 기술개발실장을 지내며 전자업계에서 경력을 다진 최 대표는 1995년 국내 최초로 백라이트유닛을 양산해 내며 업계를 주도했다.

키코 위기, 내실 다지는 기회 삼아 재도약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산엘시디는 일찍이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낙점됐다. 삼성전자 LCD TV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 태산엘시디도 함께 승승장구했다. 지난 2005년에는 삼성전자 탕정공장 가동에 따라 태산엘시디도 탕정에 생산기지를 마련했다. 임채훈 태산엘시디 경영기획실 차장은 "탕정공장 20개 생산라인에서 월 79만개의 백라이트유닛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을 공략한 것은 태산엘시디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태산엘시디는 지난 2002년 중국 장쑤성 우장(吳江)에 '태산광전'이란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태산엘시디의 중국 법인에서 2천여명에 달하는 중국 현지 근로자들이 TV와 노트북에 들어가는 백라이트유닛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아찔한 순간을 겪기도 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 환헤지 상품 키코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당시 태산엘시디는 키코 손실로 7천7백억원의 적자를 내며 도산 위기에까지 몰렸다. 하지만 태산엘시디는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자산을 조속히 처분해 회생에 성공했다.

최태현 태산엘시디 대표는 "위기를 오히려 회사 내실화의 기회로 삼아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G

글 · 이동훈 기자

조선DB


네오플 강신철 대표


셀트리온 서정진 대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온라인게임·바이오시밀러 '미다스의 손'

네오플 영업이익률 87퍼센트… 셀트리온·엔씨소프트도 천문학적 수익

네오플은 온라인 게임 하나로 연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는 '슈퍼개발사'다.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중에서 2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했다. 제약업체 셀트리온은 해외시장에서 놀라운 매출 성장을 해왔다. 이들은 올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익성 우수기업으로 나란히 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인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수출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로 유명한 네오플은 지난해 2천1백1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던전앤파이터는 모니터 화면을 가로로 이동하는 횡스크롤 액션게임으로, 한·중·일은 물론 대만과 북미까지 총 5개 지역에서 2억명의 회원을 보유한 게임 한류의 주역이다.

네오플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더 놀랍다. 지난해 영업이익 1천8백49억원, 순이익 1천4백81억원으로 올해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천억기업 실태조사'에서 수익성 부문 최고기업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력게임 하나로 2천억원 이상 매출 올린 네오플

중소기업청의 '벤처천억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네오플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87.3퍼센트로 동종업계 2, 3위와 비교해도 40퍼센트 이상 높다.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9퍼센트임을 생각하면 믿기 힘들 정도다.

네오플의 성공은 2005년 출시한 '던전앤파이터'를 당시 유행하던 3D그래픽이 아닌 2D 방식으로 개발해 눈에 익숙한 화면, 친숙한 조작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정교한 액션과 타격감을 극대화시키는 연출기술을 더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008년에는 중국 시장 진출 한 달 만에 회원수 2백20만을 돌파하는 대박을 터뜨렸고, 최근에도 동시접속자수 2백만 이상으로 중국 내 게임순위 1~3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오플은 올해 3D 액션게임 '사이퍼즈'로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과감한 설비투자로 성공한 셀트리온

수익성 부문에서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제약업체 셀트리온은 슈퍼가젤형 기업이다. 셀트리온은 2002년 설립 후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집중해 2007년부터 해마다 20퍼센트 이상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셀트리온의 성장은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눈부시다. 2007~2009년에는 매출액의 1백퍼센트, 2010년에는 86퍼센트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이러한 성공은 의약산업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과감한 설비투자와 고급인력 확보에 나선 덕분이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암치료제 같은 항체의약품들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부터 의약품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술개발에서 대량생산설비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고, 이는 적중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셀트리온의 유방암치료제와 관절염치료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복제 바이오의약품) 제품 유럽 출시가 순조로울 경우 1조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 세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게임산업의 독보적 존재 엔씨소프트

대한민국 벤처 성공신화, 단일 게임 최초 누적매출 1조원 달성,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엔씨소프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매출 5천1백46억원, 영업이익 2천5백7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중에서 2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하며 수익성 부문 우수기업상을 받았다. "게임을 좋아해서 2만원이었을 당시에 구입했던 주식이 요즘 20만원을 넘어 행복하다"는 게임 팬들의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가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나돌기도 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3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는 이듬해 만화가 신일숙의 동명 히트작을 원작으로 한 '리니지'를 출시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외산게임의 아류작이라는 지적도 일었으나 끊임없는 후속 콘텐츠 개발로 극복해 1998년 12월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피시(PC)방 산업과 맞물려 '리니지'는 국민 온라인 게임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후 출시한 '리니지2' '아이온'이 국내는 물론 북미와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히트하며 세계 게임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 기준 만들고 싶어"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워드프로세서 '한글'을 공동개발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지금은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을 거느리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을 "벤처기업인"이라고 말한다.

국내 벤처기업으로는 보기 드문 성공을 거뒀다.
"1998년 리니지를 시작으로 게임을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늘 고민하고 또 제시해 왔을 뿐이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해 준 사회와 이용자들 덕분이다."

벤처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나.
당시 집안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했다. 은행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려 했는데 게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잘 안되더라.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옮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돈으로는 부족했다. 리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밖에 사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리지니의 성공을 예상했나.
사실 리니지의 상용화는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초창기 창업자금 부족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자'고 생각하고 상용화를 시작했다. 그래도 첫날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다. 1주일 뒤에는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달 뒤에는 '역사를 쓸 수 있겠다' 싶었다.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만화산업은 과거 여러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죽었다. 현재 게임산업이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 우리 게임도 열심히 해서 영화나 음악처럼 국민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폰 열풍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엔씨소프트는 PC환경에 국한해서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올해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게임, 인터넷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서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고 싶다."

시장을 보고… 길목 지키니… 매출액 "점프"

세화아이엠씨, 매출 7배 이상 늘어… 휴맥스 · 카페베네도 4배 가까이 증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벤처기업들의 성장세가 놀랍다. 지난해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약 2배의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우수매출 부문상을 수상한 기업들을 통해 성공요인을 알아본다.


한준호 기자

창업 3년 만에 국내 커피매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카페베네의 성장세가 무섭다. 현재 전국에 6백여 개의 매장이 있으며 연내 뉴욕 맨해튼에 해외 1호점 개설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천70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무려 26.9퍼센트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2배, 대기업의 1.7배에 해당하는 높은 성장세다. 2010년 매출액 상승 상위 3개사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세화아이엠씨는 매출액 증가율 7백28.4퍼센트, 휴맥스 3백87.9퍼센트, 카페베네 3백56.6퍼센트를 기록했다.

수익성도 상당하다.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백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9.8퍼센트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6퍼센트로 웬만한 대기업보다 수익성이 좋다.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 3개사를 살펴보면 대동 5천8백78.1퍼센트, 세화아이엠씨 4천7백63.8퍼센트, 카페베네 3천9백60.4퍼센트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높은 경영실적을 올린 벤처천억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은 세화아이엠씨를 매출신장 부문 최고기업으로 시상했다. 더불어 매출액 증가율 2위 휴맥스와 3위 카페베네는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매출액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세화아이엠씨는 자동차타이어용 몰드를 만드는 금형제조 업체다. 세화아이엠씨 유희열 대표는 "자동차타이어 몰드분야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제작설비의 첨단화가 성공요인"이라고 밝혔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이어 몰드 외에 컨테이너, 드럼, 성형기, 기계설비 등 사업을 다각화한 것도 폭발적인 매출신장에 일조했다.

이와 달리 휴맥스는 오로지 '셋톱박스' 한 품목에 집중해 성공한 케이스다.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것도 성공요인이 됐다. 휴맥스 변대규 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회사는 우수 인재가 큰 자산"이라며 "그간 회사가 몇 차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대부분의 핵심 인력이 퇴사하지 않고 남아 회사를 지켜냈다"며 직원들에게 공(功)을 돌렸다.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카페베네는 매출액 증가율은 3순위지만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창업 3년 만에 국내 커피매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카페베네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다. 매출액 상승 상위 10개 기업 중 유일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라는 점도 두드러진다.

매출액 증가율 상위 벤처기업 (단위: 퍼센트)

순위	기업명	주생산품	증가율
1	세화아이엠씨	금형(자동차타이어용 몰드) 제조	7백28.4
2	휴맥스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셋톱박스 외	3백87.9
3	카페베네	커피체인점프랜차이즈	3백56.6
4	크루셜텍	LED 플래시 모듈	2백34.6
5	원방테크	클린룸설비 제조 시공	2백33.1
6	제우스	LCD In Line Transfer System, 공정장비, 검사기 등	2백32.3
7	신성솔라에너지	태양전지제조	2백15.8
8	신성이엔지	공기조화장치제조	1백78.0
9	에버테크노	LCD장비	1백77.1
10	유니크	자동차부품 (유압솔레노이드밸브외)	1백65.6

자료 중소기업청

사업다각화·글로벌 시장 겨냥이 성공요인

지난해 카페베네 매출액은 본사 기준 약 1천억원이다. 2009년 매출액 2백30억원 대비 3.5배의 신장률을 보인 것이다. 올해 매출 예상액은 약 2천억원으로 2010년 대비 2배 신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카페베네 김선권 대표는 이 같은 성공 비결로 '시장수요 예측'을 꼽았다. "국내 커피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커피수요도 급증합니다. 특히 고급 원두커피 시장이 더 그렇죠.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 위주의 사업을 펼쳐 왔기 때문에 카페베네가 론칭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맹점사업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강자는 없었습니다."

김 대표의 시장수요 예측은 적중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프리미엄 커피전문점의 수요는 무궁무진했다. 가맹점 요청은 쇄도했고 단 3년 만에 전국 6백여 개의 매장을 개설했다. 토종브랜드인 카페베네가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최다 매장 수를 보유한 커피브랜드로 당당히 올라선 것이다.

여기에는 남다른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 바로 '원포인트 차별화'다. 원포인트 차별화 전략의 핵심은 간단하고 작은 것에 대해 차별화를 하는 것이다. 다른 브랜드에 없는 싱글오리진 커피를 도입하고 모던빈티지 콘셉트의 인테리어로 차별화했다. 배우 한예슬을 앞세운 과감한 스타마케팅과 드라마 PPL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도 한몫했다.

김 대표는 가맹점 수익확보를 위해 메뉴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는 "커피만으로는 매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절메뉴나 젤라또, 와플 등 사이드메뉴를 신설해 매출구조를 다각화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R&D 투자도 성공요인이 됐다. 카페베네는 서울 중곡동에 연간 1천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로스팅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R&D 인원도 30명에 달한다. 김 대표는 "카페베네에는 교육특공대도 있다"며 "커피 맛과 점포 운영상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슈퍼바이저 외에 별도로 '교육특공대'라 명명한 현장근무형 본사직원 40명을 양성해 전국 모든 가맹점에 주 1회 이상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수요 정확히 읽어 후발주자 단점 극복

카페베네는 최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미국 뉴욕과 LA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동남아 11개국에 진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론칭 준비 단계부터 이미 글로벌 브랜드를 염두에 두고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다"며 "2015년까지 국내외 사업을 통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벤처천억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김형영 과장은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으로 글로벌 진출과 높은 R&D 투자가 유효했다"며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기술력 인정받는 순간 고용증가 ‘빅뱅’

이엘케이, 1년새 직원 1천5백명으로 5배… YBM시사닷컴 6백43명 · 서울반도체 5백71명

벤처는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확대의 첨병 역할까지 하고 있다. 2006~2009년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고용증가율은 12.65퍼센트로 중소기업(4.99퍼센트)의 2.5배, 대기업(2.26퍼센트)의 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엘케이란 회사는 2009년 전체 직원이 3백7명이었으나 1년 뒤에는 5배가 늘어난 1천5백1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동안 IT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벤처산업은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벤처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벤처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1만2천4백96명으로 전년도 8만9천7백47명 대비 25.3퍼센트나 증가했다.

벤처천억기업의 고용증가 성과를 살펴보면, 휴대폰 단말기 터치패널 제조사인 이엘케이가 1천2백5명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콘텐츠서비스 회사인 YBM시사닷컴과 발광다이오드(LED)를 생산하는 서울반도체는 각각 6백43명, 5백7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새 시장수요 대비 합병 등 결실 맺어

대기업에 비해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인 벤처천억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합병,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 부문 최고기업상을 받은 이엘케이는



박근희 기자

2010년 한 해에 전년보다 직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YBM시사닷컴은 합병과 해외 진출 등의 성과로 고용 창출에 이바지했다.

2009년 정규 직원이 3백7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무려 1천5백12명(사내 하도급 포함)으로 직원 수가 5배나 증가했다. 실업률이 차츰 해소는 되고 있으나 고용인력이 5배나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엘케이는 1999년 휴대폰 키패드 광원인 무기EL 제조업체로 출발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터치패널 단말기 수요 확대를 전망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정전용량 방식의 ITO 터치패널 채택률과 패널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연 매출이 2008년 3백50억원에서 2010년에는 2천3백86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5백81퍼센트나 증가했다.

YBM시사닷컴은 ECC 합병을 발판으로 유·초등 영어교육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효과적 회원확대를 통한 매출성장으로 고용이 증가한 경우다.

YBM시사닷컴 경영지원실 권성학 부장은 "2011년 5월말 기준 근로자 수는 총 9백여 명으로 YBM시사닷컴이 창립 10주년이 되는 지난 2010년 사업 다각화와 함께 오프라인 사업부인 ECC를 합병하면서, 그 전년 대비 직원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원 수 증가와 향후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올 들어 사옥을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옮겼다.

YBM시사닷컴은 모회사인 YBM이 50년간 축적한 영어교육 콘텐츠와 노하우를 이어받아, 이를 디지털화하고 앞선 온라인 기술과 결합시켜 온라인 어학교육 시장에서 선도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6월에 설립해 국내 e러닝 시장을 개척해 온 YBM시사닷컴은 창사 4년 만인 2004년 6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일찌감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2010년 창사 10주년에는 1천억 매출 기록과 함께 산업군 최대 규모인 5백만명 회원을 돌파했다. YBM시사닷컴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천46억원으로 1년 매출 1천억원이 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기업은 YBM시사닷컴을 포함해 3곳뿐이다.

매출의 10퍼센트 이상 R&D 투자도 발판

YBM시사닷컴은 CNN, AP뉴스 등과의 독점계약을 통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어린이 영어학습관 '잉글루'의 성공적인 일본 론칭 및 전자도서관 사업, 테스트솔루션 사업 등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교육을 직무·교원연수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어학시험접수(TOEIC) 대행계약이 2019년까지 연장되는 등 기존사업들의 안정성을 강화해 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일자리 증가 상위 벤처기업 (단위 : 명)

순위	기업명	주생산품	증가수
1	이엘케이	EL제품	1천2백5
2	YBM시사닷컴	어학, 콘텐츠	6백43
3	엔씨소프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5백91
4	서울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5백71
5	태산엘시디	백라이트유닛(BLU)	4백16
6	유라코퍼레이션	와이어링하네스	4백10
7	심텍	모듈 PCB	3백95
8	넥슨코리아	온라인게임, 무선인터넷게임 서비스	3백80
9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패키지	3백55
10	디스플레이테크	LCD 모듈	3백41

자료 중소기업청

약 3년 전부터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YBM시사닷컴은 앞으로 해외 교육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5년 뒤에는 매출 2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글로벌 LED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을 R&D에 투자한 것이 '벤처천억기업'의 발판이 되고 있다.

대기업 주문 물량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고객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서울반도체는 전체 매출의 약 40퍼센트 이상을 독자 브랜드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휴대폰과 노트북, LCD TV, 자동차와 조명 분야까지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 교류전원용 반도체 광원 '아크리치'를 통한 조명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는 우수인력 영입해 숙련시키는 게 관건"

벤처천억기업 CEO들은 "수주가 늘어나고 수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저절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용을 늘렸다고 해서 수익 창출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벤처는 우수인력을 적절한 시기에 영입해 연구를 장려하고 숙련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벤처기업협회 허영구 정책연구팀장 역시 "벤처기업은 태생적으로 자본이 기술과 사람에서 출발한다"면서 "특히 매출 천억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바탕은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가 대기업이 1.5퍼센트, 중소기업이 0.8퍼센트인 것에 비해 벤처천억기업은 2.8퍼센트"라고 전하면서 "이와 같은 연구개발 투자가 곧 기술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G

글·박근희 기자



벤처펀드 1조5천억원 쏜다

'중기 기술 융·복합지원센터' 7개 권역별로… 중기기본법 개정안 공포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무장한 강소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은, 최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자금과 기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금 인하와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확대 , 융·복합기술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바로 그러한 지원책들이다.

중소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세금 인하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3차례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러한 법인세 인하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세율 구간을 13퍼센트에서 11퍼센트로 인하한 데 이어 2010년 다시 11퍼센트의 최저세율을 10퍼센트로 내렸다. 또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최고세율 구간도 2009년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하했다.

기업 법인세 부담 현황(2009년 기준)을 살펴보면 최저세율(10퍼센트)만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 즉 중소기업은 모두 37만개로 전체 법인의 8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두 차례의 최저세율 인하로 이들 법인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후 실효세율은 9.8퍼센트로 낮아졌다.

또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최고세율 구간인하로 4만6천개 법인(전체 법인의 10.9퍼센트)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후 실효세율은 20.1퍼센트.

이렇게 최고세율 구간인하 효과를 본 4만6천개 기업 중 대다수는 역시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백6만9천4백개(2009년, 중소기업청) 중 중견·대기업 수는 2천9백16개(0.1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평균 24.2퍼센트 수준.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는 2000년 30.2퍼센트에서 2011년 23.6퍼센트로 인하됐다. 또 우리나라 주변 경쟁국들의 법인세는 홍콩 16.5퍼센트, 싱가포르 17퍼센트, 대만 17퍼센트, 중국 25퍼센트 등이다.

'아임 유어 에너지' 벤처펀드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3천3백만 달러 규모의 '한·이스라엘 공동펀드(MaC Fund) 결성식'을 개최했다. 한국의 엠벤처투자와 이스라엘의 CBG Partners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게 되며, 투자 대상은 클린테크,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등 분야다.

한·이스라엘 공동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금년에 조성 중인 7천6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펀드' 사업 중 일부다. 이처럼 글로벌 벤처펀드가 활성화되는 등 벤처펀드가 다양해진다.

먼저 올 하반기에만 국민연금·한국벤처투자·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산업기술진흥원 5개 기관 주도로 결성 예정인 벤처펀드가 1조5천8백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스마트기기·애플리케이션 열풍과 함께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펀드가 눈길을 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처음 청년창업투자펀드 3개에 각 1백억원을 출자, 총 4백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총 1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모태펀드가 1백40억원을 출자, 2백억원 규모로 결성하는 인큐베이팅 펀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설립 초기 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투자와 함께 다양한 멘토링사업을 전개한다.

'미래를 향해 쏴라' 융·복합기술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확정되고, 지원센터 7개소가 권역별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83개 신규과제를 선정, 1백89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지원대상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지원되는 과제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선정한 87개이다. 국내 융·복합기술 지원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부분 대학, 연구소, 대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의 개발주체가 되는 R&D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5백93개 과제에 7백62억원을 지원, 기술수준 향상과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격차 해소 등에 크게 도움됐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지원센터'를 7개 권역별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7개 센터는 권역별로 경인권(서울·인천·경기)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기·강원권의 용인송담대학, 중부권(대전·충남북)의 한밭대학교,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광주테크노파크, 대경권(대구·경북)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부산·울산권의 부산경제진흥원, 동남권의 경남테크노파크 등이다.

벤처천억기업 육성 정책

구분	내용	시행시기
법인세 인하	과표 2억 이하 및 초과 기업 대상	2008 ~2010년
한·이스라엘 공동펀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 클린테크 해당	2011년
정책금융공사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대학생 중심 IT 청년창업 지원	2011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융·복합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2011년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지원센터 운영	전국 권역별 7개 센터 지정, 운영	2011년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자 지원	공공기관 소모성자재 구입시 우선 계약	2011년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책 실시 유도	2011년

'약자 보호'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7월 25일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 구입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 체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시책 참여 허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실시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중소기업청 www.smba.go.kr ☎국번없이 1357

조선DB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서울 구로구 일대 벤처단지. 각종 첨단 벤처기업 1만여 개가 몰려 있다고 해서 'G밸리'로 불린다.

"창업에서 성장으로… 벤처생태계 바꿔라"

우량한 싹은 북돋우고 불량한 싹은 잘라내는 '차별화 원리' 도입해야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이 3백15곳이나 탄생했다. 하지만 그간 시행한 '따뜻한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며 우량 벤처기업들은 더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제 벤처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차별화 원리'로 정책을 전환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 벤처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소위 '벤처천억기업'이 3백15곳에 이르렀다. 매출 1조원을 넘어선 기업도 3곳에 달한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기업군(群)이 절실하다. 유망 벤처기업의 증가는 매우 기쁜 소식이다.

우리 경제의 고민거리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벤처기업들의 성과가 높다. 벤처기업의 지난해 총 고용인력은 11만2천4백96명으로 2009년의 8만9천7백49명에 비해 25.3퍼센트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지난 5년간 고용증가율도 12.65퍼센트로 대기업(2.26퍼센트)과 일반 중소기업(4.99퍼센트)보다 2~5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본래 벤처기업은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눈부신 실적을 낸 셈이다. 이는 벤처기업이 고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공헌을 할 것이란 점을 확인시켜 준 결과다.

대기업으로 성장할 중견기업군 나타나야

이 같은 실적은 한국 벤처부문이 조용하고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장세를 가속화하려면 벤처생태계가 그 성장

세에 적합하도록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성장을 유인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벤처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는 기존의 '창업' 중심 벤처정책에서 '성장' 중심 벤처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벤처생태계란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하는 인프라 조건을 의미한다. 완성도 높은 벤처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된 곳은 매우 드물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유일할 정도다.

대개 자생력이 약한 벤처 불모지에서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벤처생태계의 조성 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정부 주도의 벤처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빠른 시간 내에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책목표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벤처정책은 1997년 '벤처특별법'으로 본격 시작됐다. 당시는 벤처 패러다임의 초기였기에 벤처 '창업'을 유인하는 제도 창출에 집중됐다. 그 후 기존의 중소기업을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으로 유인하는 쪽으로 정책대상이 확대됐다. 또 벤처 패러다임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이 확인제도는 2006년 이후 민간부문에 이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벤처특별법과 벤처확인제를 근간으로 추진돼 온 한국의 벤처정책은 벤처기업군이 향후 중견기업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몇 가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량 벤처기업에 자부심 줄 우대혜택 부족

첫째, 벤처정책에 '차별화 원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는 더이상 우선순위의 가치가 높은 게 아니다. 벤처특별법으로 시작한 한국의 벤처 패러다임도 15년의 세월을 축적했다. 다양한 풍상(風霜)을 경험했다. 이 정도의 성숙과정을 거쳤다면 양적 성적표로서 벤처의 성과를 논의할 시점은 지났다. 새로운 벤처정책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철학이 차별화 원리다. 차별화 원리는 우량한 싹을 북돋아 주고, 불량한 싹은 도태시키는 원리다. 1997년 벤처특별법 시행으로 지속된 벤처지원제도는 지나치게 '따뜻함의 철학'이 지배하는 문제를 노출했다. 작고 영세한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쪽에만 치중한 것이다. 이는 '벤처' 브랜드를 획득하는 문턱을 낮췄다.

반면 우량 벤처기업들을 위한 차별적 우대는 부족했다. 결국 '낮은 차별화'는 벤처기업이 됐다 해도 이렇다 할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부터는 벤처기업의 조건으로 엄격하고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화된 지원내용으로 벤처기업으로서 지원을 받는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전체 기업생태계를 생각하면, 강자가 독식하는 정글의 원리보다는 공존의 따뜻함이 필요한 시점임에 동의한다. 그래야 중소벤처기업도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성장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투자 같은 중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벤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내적으로는 차별화 원리가 지배해야 한다.

둘째, 벤처업계로 첨단지식이 유입되도록 유인책을 보완해야 한다. 첨단지식은 벤처기업의 생명이다. 우리 경제에서 첨단지식을 만드는 대표적 주체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나오는 연구결과들이 벤처기업에 전달되는 효과적인 통로와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

첨단지식이 벤처로 전달되는 통로 마련을

특히 대학 실험실과 벤처기업 사이의 실질적인 연구성과 교류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벤처기업이 더 늘기를 소망하면 산학협력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학 실험실 자체가 하나의 독립 벤처기업이 되거나, 실험실의 지식이 벤처업계로 이전되며 기존의 산학협력을 넘어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하는 정책 발굴이 관건이다.

셋째, 글로벌 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적 강소기업을 보면 창업 초기부터 세계적인 경쟁판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탄생시점부터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탄생할 때부터 세계 시장을 생각하는 기업을 '본 글로벌(born-global)'기업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 벤처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특허 활용을 격려해 기술역량을 보완토록 유인해야 한다. 또 협소한 내수시장 대신 세계 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해외 기술인재를 활용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



조용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벤처부문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공급원으로서 활약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또 이를 지원하는 벤처생태계의 성숙화를 기대해 본다. G

글 · 손동원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노래·연기력 겸비한 'K컬처 복합체'

팬클럽 회원 1백6개국서 가입… 6월에 낸 첫 미니앨범은 아시아 전역 차트 1위에

아이돌그룹 SS501의 멤버로 시작했던 김현중은 'K컬처 인기의 복합체'로 불리고 있다. 가수, 배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의미다. 그의 인기는 아시아와 동남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미, 남미를 비롯해 지중해 섬나라까지 팬클럽이 퍼져 있을 정도다.

"제가 'K컬처' 인기의 '복합체'라고요? 영광일 뿐이죠."

김현중은 전 세계로 뻗는 'K컬처' 인기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의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리기엔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많고, 한 분야의 '정상'이라고 부르기에도 아직은 어린 25세의 청년이다. 김현중이 'K컬처의 복합체'로 불리는 건 그가 K팝과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K컬처'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도쿄서 열린 자선이벤트에 1만명 몰려

김현중이 소속돼 있던 아이돌그룹 SS501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가 출연한 드라마 〈꽃보다 남자〉 〈장난스런 키스〉 등은 전 세계로 수출됐다. 지난 8월 2일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 일본 방영을 기념,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지진피해 자선이벤트에는 1만여 명의 팬들이 자리를 메웠다.

지난 6월에 발매한 그의 첫번째 솔로 미니앨범은 국내에서 12만장 이상 팔렸고 아시아 전역에서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음반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인 MBC 〈우리 결혼했어요〉는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서 김현중이 폭발적 인기를 끌게 된 원동력이 됐다. 정식 수출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인터넷사이트,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김현중의 인기는 그 끝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현중은 'K컬처'로 불리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장점을 한국인 특유의 열정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이나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이 강한 것 같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열정이나 노력이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으로 K팝이나 우리 드라마, 영화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김현중이 음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소속사 키이스트 임원들의 트위터에는 수천 명의 팔로어가 생겨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나 동남아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사람도 다수다.


키이스트

7월 29일 도쿄 오다이바 제프도쿄에서 열린 김현중 첫 솔로앨범 쇼케이스에는 약 1천8백명의 팬이, 8월 2일 '지진 피해 자선 이벤트' 참석 당시에는 약 1만명의 팬이 몰렸다.

〈장난스런 키스〉 등 드라마 수출로 인기 확산

김현중의 공식 홈페이지 김현중닷컴(HYUN-JOONG.COM)의 회원은 무려 1백6개국의 팬들이 가입할 만큼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다. 전체 인원 중 38퍼센트만이 내국인이고 나머지 62퍼센트는 해외 팬들이 차지하고 있다. 남미에는 12개국에 팬클럽 회원들이, 북미에는 약 2천명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돼 있다.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에도 6백명 넘는 회원이 30여 개국에 퍼져 있고,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와 카리브해의 산호섬 앵귈라에도 팬클럽 회원이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2백명에 육박하는 팬클럽 회원이 있다. 이는 김현중이 가히 K컬처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앨범뿐 아니라 드라마랑 예능 프로들이 해외로 많이 수출돼서 해외 팬들이 많이 늘었어요. 전 세계의 팬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



회가 많아져서 행복합니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을 통해 K컬처를 해외로 널리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키이스트(Keyeast)의 의미는 동방(East)문화의 핵심(Key)이 되자는 뜻으로, 한류로 불리는 K컬처 확산의 주역이었던 '욘사마' 배용준씨가 최대주주이고, 그를 포함해 최강희, 주지훈, 김현중, 김수현 등 30여명의 배우를 매니지먼트하고 있다.

배우 매니지먼트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온 키이스트는 김현중을 통해 K팝 시장의 성장을 겨냥, 음반사업에도 본격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자회사 '홀림'을 통해 드라마 〈드림하이〉 제작에 성공하면서 제작사로도 입지를 다졌다. 키이스트 측은 "〈드림하이〉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만큼 국내와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까지 겨냥한 종합적인 음반 사업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김현중을 핵심으로 음반제작 및 디지털 음반사업, 공연, 해외 음반 수출, 행사, MD, 해외로열티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컬처가 오랜 생명력 갖도록 최선 다할게요"

일본 음반 시장 진출은 배용준과 키이스트가 인수한 자회사 DA(Digital Adventure)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DA는 일본 상장사로 아시아 콘텐츠 전문 위성채널인 DATV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중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관심에 대해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한 첫 솔로 앨범인데 기대 이상의 큰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면서 "무대에서나 작품 속에서나 항상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현중은 K컬처가 세계의 자랑스런 다문화로 확대되기 위해 '몸통'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도 K컬처 발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K컬처가 오랜 생명력을 가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G 글 · 김동하 기자 (머니투데이 엔터산업팀)

"빠져들게 하는 '치명적인 중독성' 있다"

중국·대만에선 K팝 압도… 중동·남미로 '드라마 한류' 저변 확대

한국에서 인기 있으면 해외에서도 인기다. 한국에서 인기 없어도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다. 최근 세계 속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두고 한 말이다.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에 제한됐던 드라마 한류는 이제 미국·유럽·남미·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드라마 한류가 진화하고 있다. 대만, 중국, 일본 등 최초로 한류 드라마 붐을 일으켰던 곳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적이다. 대만의 경우,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의 인기순위는 현지에서도 거의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인기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후 중국 팬들은 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가 중국 현지에서도 곧바로 인기를 얻는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국내에서 저조한 시청률에 머물렀던 드라마가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종영한 SBS 드라마 〈내게 거짓말을 해봐〉(이하 내거해)는 국내 시청률은 저조했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면서 화제가 됐다.

'내거해'는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사이트 '투도우(tudou)'의 인기 TV 드라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류 전문 사이트 '마이소주(mysoju)'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드라마 전체 주간 순위에서 1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한국 내 시청률 상관없이 아시아에서 인기 폭발

일본에서도 드라마 한류의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초기 한류가 주부들 등 중장년층에 퍼져 있었다면 이제는 청소년층까지 확대됐다.

사극이나 멜로 장르와 더불어 〈꽃보다 남자〉, 〈미남이시네요〉 등 트렌디한 드라마가 청소년층에서 인기다. 〈미남이시네요〉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첫 방영 후, 재방송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3번이나 재방송됐다.

드라마 속 가수로 열연했던 장근석은 일본 현지에서 가수로 데


SBS


MBC

최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SBS 드라마 〈내게 거짓말을 해봐〉(왼쪽 사진)의 경우, 국내 시청률이 저조했지만 중국에서 인기 드라마 1순위로 꼽히는 등 중국·일본·대만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MBC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도 방영 전부터 일본·중국·홍콩·필리핀·북미 지역 등 총 8개국에 선판매되며 드라마 한류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뷔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새로운 한류 스타로 떠오른 장근석은 '근사마'로 불리며 '포스트 욘사마'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일본 내 〈아가씨를 부탁해〉 방영으로 인기몰이 중인 윤상현 역시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신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곳곳에서도 드라마 한류의 열기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한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해외에서도 실시간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미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사이트 '훌루닷컴(hulu.com)'에는 SBS 드라마 〈나쁜 남자〉가 인기를 끌면서 초기화면을 장식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는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마니아들이 점차 늘고 있다. 영어권 최대 한류 커뮤니티 '숨피닷컴(soompi.com)'에서는 지난해 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네티즌들이 좌의정과 우의정의 차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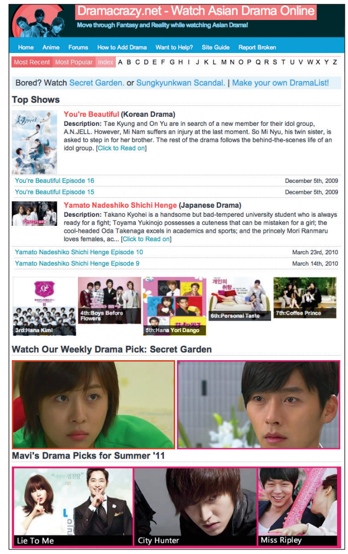
국내 방영 앞서 선계약도… 수출대상국 계속 늘어

이런 현상은 유럽, 호주, 남미 등 각지로 번져가고 있다.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호주인 클로이 필립(20)씨는 "〈장난스런 키스〉, 〈파라다이스 목장〉, 〈내게 거짓말을 해봐〉, 〈동안미녀〉 등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평소 즐겨본다"며 "한국 드라마는 중독성 있게 재미있고 스토리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이런 드라마는 호주에 없다"며 한국 드라마 애찬론을 펼쳤다.

프랑스인 로르 푸고드(32)씨 역시 "요즘 〈내마음이 들리니〉, 〈최고의 사랑〉, 〈시티헌터〉,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드라마와 비교해서 화질, 음향, 음악적인 배경이 뛰어나서 좋아한다. 미국 드라마와 매우 다른 주제와 전개방식으로 독창성 있다"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한국 드라마 수출 시장의 전망도 밝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시티헌터〉는 첫 방영에 앞서 미국·홍콩·태국·베트남 4개국 방송 프로그램 구매 대행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캄보디아·미얀마 구매 대행사와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SBS콘텐츠허브 류하나 과장은 "보통은 드라마가 방송된 후 시청률 등 현지 반응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관례지만 〈시티헌터〉는 시나리오 및 제작진, 배우 이민호의 출연 등으로 일찍이 '웰메이드 드라마'로 판단돼 많은 국가에 선수출됐다"며 "드라마 방영 후 인기를 끌면서 최근 일본, 대만, 불가리아 등에서도 〈시티헌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수출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요즘 영미권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단연 최고다. 사진은 아시아드라마 사이트 '드라마크레이지닷넷'의 인기순위 화면.

이처럼 해외 각지로 한국 드라마가 공식 수출되면서 드라마 한류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KBS의 경우, 최근 3년간 대만·일본·말레이시아·미국·베트남·싱가포르·중국 등 드라마 주요 수입국인 7개국 외에 20여 개국에 드라마를 수출했다. 여기에는 중동, 남미 지역과 함께 아프리카국도 있다.

SBS 역시 최근 지상파 방송3사 최초로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를 불가리아에 수출하는 등 수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SBS콘텐츠허브 류하나 과장은 "홍보를 안 했을 뿐이지 한국 드라마는 해외 시장에서 계속 잘 팔렸다"며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에 〈신기생뎐〉을 수출하는 등 최근 유럽, 중동 등으로 한국 드라마 수출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남미엔 스페인어 더빙… 유상 수출 늘고 있어

MBC는 남미 국가에서 드라마 수출을 선점하고 있다. 페루·볼리비아·코스타리카 등 남미 국가에 〈대장금〉, 〈내 이름은 김삼순〉, 〈커피프린스〉, 〈불새〉 등 MBC 드라마 8편을 이미 수출했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가 현지에서 매우 인기다.

MBC 해외사업부 허정숙 차장은 "남미 국가에 한국 드라마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 스페인어로 더빙해 수출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홍보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다 2009년부터 유상 수출을 시작했는데, 요즘 유상문의가 매우 많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미 지역의 드라마도 권선징악적인 내용이나 신데렐라 스토리가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한국 드라마를 친숙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같다"며 남미 내 드라마 신 한류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G

글·이제남 기자



김선아 기자

〈최고의 사랑〉 〈풍산개〉 열연한 윤계상

"난 배우다"

남성 보컬그룹 지오디 출신의 윤계상은 이제 어엿한 배우다. 그는 로맨틱 코믹 드라마 〈최고의 사랑〉을 통해 팬들에게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았고, 영화 〈풍산개〉에서는 배우로서 과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지한 면모를 평가받았다. 당당한 배우로 자리매김한 윤계상을 만났다.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은 까닭인지 윤계상은 환한 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가수 윤계상은 잊히고 배우의 이미지가 짙어졌다"는 말에 "너무 고맙다"며 "요새 부쩍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했다. "지금 꼬마들은 내가 가수였다는 것도 모른다"고도 덧붙였다.

"〈최고의 사랑〉에서 독고진(차승원 분)이 워낙 강한 캐릭터라 윤필주(윤계상 분)는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중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하고 싶었기에 그 드라마에 출연했어요. 영화에서는 조연이 빛날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선 주인공 외의 인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각본을 쓴 홍정은·미란 자매는 확연히 남녀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어떻게 연기를 보여줄까 고민을 많이 했죠. 독고진과 비교했을 때 심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전체적인 극 전개에 맞춰 튀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 가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습니다."

전재홍 감독 "윤계상 없었으면 이 영화 못 만들어"

사랑하는 여인을 결국 연적에게 보내 주면서도 상대를 지키는 배려심과 자상함에 열광한 여성 팬들은 '필주앓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윤계상에게 환호를 보냈다.

"연기에 대한 갈증이 컸고, 욕심이 많았던 때에 영화 출연 제안을 받았어요. '김기덕 감독이 썼고, 연출은 다른 감독이 하는 작품이다. 시나리오를 한 번 읽어 봐라' 해서 보게 됐어요. 그러고는 완전히 반했죠. 그걸 놓치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출연)한다고 했어요. 전재홍 감독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합시다'였어요. 저는 '예' 했죠."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제자이자 후배다. 전재홍 감독의

두번째 작품인 〈풍산개〉는 김기덕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까지 맡은 영화다.

김기덕 감독은 외부의 투자를 일절 거부한 채 자신의 영화사인 '김기덕필름'의 제작비 2억원으로만 영화를 만들었다. 주연배우와 스태프는 사전 계약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흥행 결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 간 전재홍 감독은 "지오디 때의 윤계상은 전혀 몰랐다"며 "영화 〈비스티 보이즈〉를 보고 〈풍산개〉의 주인공은 무조건 윤계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풍산개〉는 윤계상이 없었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못했을 영화"라고 말했다.

"배우로서는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고 욕심 부리고 조바심을 내 왔다면 지금부터는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여유와 혜안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풍산개〉에서 터프한 매력을 보여준 윤계상.

"잘 갖춘 시스템 속 요즘 후배 아이돌이 부럽다"

〈풍산개〉에서 윤계상은 휴전선을 넘나들며 사람과 물건을 남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수수께끼의 남자 풍산 역을 맡았다. 국정원의 협박성 의뢰를 받은 풍산은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고위간부의 애인(김규리)을 남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죽을 고비를 함께 겪는 과정에서 남녀 간 애틋한 호감이 생긴다.

그러나 남북의 엇갈린 이해는 이들의 사랑을 비극으로 몰아 간다. 극중 대사 한마디 없고 남측인지 북측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풍산은 세상의 질서에 길들지 않은 유령 같은 남자다. 윤계상은 사랑하는 여자와 자기만의 세계를 위해서 세상과 맞서는 한 남자의 순수한 내면을 다양한 표정과 액션으로 보여줬다.

"지오디는 우연처럼 찾아왔고, 정신 차리고 보니 3집을 냈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고 한 시절을 보냈다는 게 후회가 돼요. 요새 후배 가수들, 아이돌스타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때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됐어요. 우리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요새 아이돌스타들은 다 갖추고 시작하잖아요."

윤계상은 "요새 후배 아이돌스타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춤과 노래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 가르쳐 주지, 연기 선생님 붙여 주지, 예능 프로그램 출연시켜 주지… 시스템이 정말 좋아졌어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능 프로그램 한 번 출연하려고 해도 PD님 앞에서 꼬박 기다려야 했죠. 김밥 먹으면서도 노래 연습할 시간이나 대기실도 없었다니까요."

〈최고의 사랑〉에서 부드러운 남자, 〈풍산개〉에서 강한 남자. 실제의 윤계상은 어느 쪽일까.

"굳이 따지자면 강한 남자 쪽이죠. 저는 절대로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양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윤필주를 연기하면서는 정말 답답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의 저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었을 거예요. 집념이 센 편이죠."

"연기도 연애도 확률 제로 게임은 안 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도전하고 부딪치지만, "그렇다고 확률 제로의 게임은 안 한다"는 것이 윤계상의 말이다. 연기도 연애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최근 영화와 드라마에서 윤계상의 승부수는 맞아떨어진 셈이다. 출연작마다 흥행에 고전하다가 이번 드라마에선 인기를 얻었고, 영화에선 '배우로서 재발견'이라는 평을 들었으니 말이다.

"윤필주같이 모든 것을 갖춘 남자뿐 아니라 거지 역할을 해도 되고 한심한 '찌질이'도 어울리죠. 사실적인 얼굴과 사실적인 외모, 이게 배우로서의 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윤계상은 오는 9월부터 MBC 시트콤 〈하이킥3-짧은 다리의 역습〉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G 글·이형석 (헤럴드경제 문화부 기자)


연합

김세환(왼쪽부터), 송창식, 윤형주가 지난 7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세시봉 친구들'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들을 보면 옛 추억·옛 사랑 생각에…"

'세시봉' 콘서트·영화 〈써니〉 등 복고 열풍… 젊은 층 공감 교량역할도

통기타 1세대인 세시봉은 서정적 가사와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7080세대는 물론, 젊은이들에게까지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708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 〈써니〉도 대박을 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7080문화가 한류의 지평을 넓히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몇 달째 각종 음원차트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기 아이돌 걸그룹의 노래다. 텔레비전을 틀면 음악 프로그램부터 예능 프로그램까지 아이돌이 장악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이런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아이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중장년층 문화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음원차트에서는 아이돌이 대세지만, 음반차트에서는 세시봉 친구들, 이소라의 앨범이 상위권에 안착해 있다.

연극 무대에서는 중년의 삶과 사랑,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풍 노래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 인기다. 올해 상반기 영화계를 휩쓴 작품 또한 7080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영화였다. 말 그대로 '복고 르네상스 시대'다.

중장년층 문화가 다시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 '놀러와' 특집 공연에 출연하자마자 전국에 열풍을 불러온 '세시봉'을 빼놓을 수 없다. 세시봉은 대한민국 통기타 1세대로 송창식 김세환 윤형주 이장희 조영남이 그 주인공이다.

'세시봉' 전국투어 콘서트 매진 행렬

'세시봉 친구들 스페셜'은 녹슬지 않은 가창력과 가슴을 울리는 서정적 가사,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고스란히 담아 냈다. 덕분에 세시봉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몰고 다니며 장장 5개월의 전국 투어 콘서트 매진 사례를 이어 가고 있다. 또한 세시봉은 진정성을 무기로 50~60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스물두 살 딸과 함께 세시봉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는 김태환(남·53세)씨는 세시봉의 인기 이유에 대해 "7080의 문화적 욕구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아이돌과 댄스 음악이 대세였고 집에서도 늘 리모컨은 딸들의 차지였어요. 이런 상황에 안팎으로 소외감을 느낀 중장년층이 문화에 대한 갈증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시봉을 보면서 옛 추억과 향수에 젖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온 가족이 7080문화에 공감했고, 지금은 함께 옛날 음악을 즐기고 있어요."

그는 "중장년층 문화에는 단순한 추억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자(여·56세)씨는 7080문화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로 가창력을 꼽았다. 이씨는 "아이돌 가수들과 비교할 때, 즉석에서 자유자재로 자신들의 노래를 연주하고 직접 부르는 가수들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래들이 다 비슷비슷한 댄스 음악이 되었고 우리 세대가 즐겨볼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 세시봉을 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씨는 또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니 내 시간이 많아졌고 남편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돌아온 것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영(남·49세)씨는 "최근 7080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같이 공연을 본 사람들 대부분이 내 또래였던 것을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최씨는 "예전에는 자녀들과 점점 거리가 벌어진다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그 거리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자녀들과 관심을 공유하게 되다 보니 더욱 친밀해졌다. 옛것의 재발견이 7080문화의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쟁쟁한 할리우드 영화들을 모두 누르고 올해 상반기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한국 영화 〈써니〉. 대형 스타 하나 없는 이 영화의 열풍 역시 7080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7080세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공감했을 뿐 아니라 부모 세대에 호기심을 가진 젊은 층이 가세한 것이다.

그렇다면 7080세대가 바라보는 현재 대중문화의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은 하나같이 '한류(韓流)'라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여·54세)씨는 "솔직히 요즘 가수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



영화 〈써니〉에 출연한 배우들이 지난 5월 개봉에 앞서 추억 공감 콘서트를 하고 있다.

는 것이 사실이다. 노래뿐 아니라 의상, 춤 하다못해 가수들의 얼굴까지도 닮아 있어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외국 가수들을 좋아할 때 나의 제일 좋아하는 멤버를 알아보지 못하셔서 서운했던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다"며 웃었다.

김씨는 "며칠 전에 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복고풍 디스코가 나오는 것을 봤다. 복고풍 디스코에 다시 젊은이들이 열광한다는 것이 반가웠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계속 우리 시절의 노래에 열광한다면, 한류열풍을 타고 외국인들이 우리 세대의 노래에 춤추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복고 르네상스' 더해져 한류의 폭 넓어지길

이영식(남·52세)씨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의 밴드들에 열광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그 대상인 것 같다"면서 "가족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나보다 더 한국 가수들 이름을 줄줄이 읊어대던 외국인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TV에서 유럽 등 다른 나라를 휩쓴 한류열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나' 싶어 놀랍기까지 했다. 앞으로 7080문화 같은 다양한 문화가 더해져 한류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7080문화의 귀환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 '복고 르네상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로 뻗어 나가 문화의 지평을 넓혀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G

글 · 강윤지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5수 끝에 진학… 1학년 평점 4.5점 만점 허성삼씨

"세계를 디자인하는 건축가 되고 싶어요"

허성삼씨는 수능만 다섯 번을 치렀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진학한 건축학과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꿈을 발견했다. 4.5점 만점에 평점 4.5점을 받은 그는 올해 초 일본으로 학교에서 보내 주는 해외건축탐방을 다녀왔다. "건축학은 디자인·공학·사회과학·인문과학의 집대성"이라고 말하는 그는 학업을 마친 후에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세계적 건축가를 꿈꾸고 있다.



스물일곱 살의 늦은 나이로 대학에 들어간 허성삼씨는 '인문·사회적인 내공이 쌓인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가슴이 뛰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몇 년 늦었다든지 빠르다든지 하는 것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G20세대 허성삼(명지대학교 건축학과 2년)씨는 남보다 늦은 스물일곱 살 때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남보다 4~5년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즐거움은 학점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그는 학점 평점 4.5 만점으로 학교 장학금을 받았다. 올해 초 그는 건축학과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일본 간사이 지방으로 해외건축탐방을 다녀왔다. 1학년 학생으로는 그가 유일했다.

"저는 장수생(대학입시를 여러 번 준비하는 수험생을 일컬음)이었어요. 수능만 다섯 번을 치렀죠(웃음).

중학교 때까지는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에 대한 제 소질을 발견한 미술선생님이 미대 진학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학교 미술부에 들어가 미대 입시를 준비했지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술부를 그만두고 치대에 진학할 생각으로 고3 때부터 이과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공부가 제게는 참 어렵더라고요.

한두 번은 수능성적이 꽤 잘 나왔지만, 원하는 대학에 성적이 조금씩 모자라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즐겁게 생활하는데 나만 계속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더라고요.

결국 군에 입대했어요. 군복무 중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치대에 갈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적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건축학과에 진학하게 됐나요.

"부모님의 조언 때문이었어요. 사실 대학진학을 아예 포기하려고 했어요.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워서 아버지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때 부모님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아쉽지 않으냐. 건축학과에 진학하면 어떻겠느냐'고 권했어요.

알아보니 건축학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유명 건축가에 관한 이야기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난생처음으로 '나도 저런 것을 해 보고 싶다'는 느낌이 왔어요.

'건축학과는 공부량과 설계과제가 많은 것으로 악명 높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들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설계라는 것이 하나의 여가생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해 보니 건축학은 어떤 학문이던가요.

"처음에는 '건축학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건축학이 디자인일 뿐 아니라 공학·사회과학·인문과학의 집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축은 설계도와 건축모형뿐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요.

문화·역사·기후·지리·교통·사회구조, 건축 의뢰인의 성격과 행동 패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건축학이라는 학문은 끝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의욕도 생기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우선은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건축 관련 학문을 접해 보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중에 제가 가장 마음이 끌리는 세부 분야를 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석사는 지금 다니는 명지대학교에서 따고 박사과정은 외국에서 해 보고 싶어요.

올해 초 일본의 유명 건축물을 탐방하면서 건축물에 녹아들어 있는 일본의 문화와 가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훌륭한 건축물이 있지만, 해외에서 공부하면 서구·중남미·중동 등에서 온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인문·사회적인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 후의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선진국보다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국내에는 이미 경험 많고 유능한 건축가가 많이 있잖아요? 기술도 건축 선진국인 일본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달해 있고요.



해외건축탐방 중 일본 오사카성 외벽에서. 한국의 고궁보다 높고 두꺼운 성벽을 가진 일본의 성을 견학하면서 내전이 많았던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저만의 철학과 스타일을 표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통해 그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건축가로서 최종 목표는,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G20세대로서 다른 G20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사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입시공부 때문에 고민할 여유조차 없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대학의 어떤 학과에 진학하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기 있는 전공이나 직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거기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커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길고 힘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학기를 마쳤을 뿐인데 허성삼씨는 이미 건축학에 대한 지식과 철학, 열정으로 무장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대학생으로서 나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였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분야를 찾은 허성삼씨가 그의 포부처럼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G

글 · 김남호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4년)

다음 내리실 역은 '문화역서울 284' 입니다

옛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한국판 오르세역으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과거 기차역이었다. 한때 폐쇄될 위기에 놓였던 오르세역을 프랑스 정부가 개조해 지금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오르세역이 생긴다. KTX 신역사의 건축으로 방치됐던 구 서울역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구시대 유물로 방치됐던 옛 서울역사가 지난 8월 9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름도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공모를 거쳐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옛 서울역의 사적번호(284)와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접목시킨 명칭이다.

1925년 지어진 서울역사는 식민지 조선의 슬픔과 광복의 기쁨, 전쟁의 상처, 근대화·민주화 과정을 함께해 온 서울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이다. 1981년 9월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4년 KTX 신역사가 생기면서 옛 서울역사는 수년간 방치돼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서울역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복원 공사를 2009년 7월 착수했다.

"낙후된 서울역 주변을 성장축으로 재편 역할"

2007년 8월부터 역사 관리를 맡아 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곳에서 사진·미술·디자인·건축 전시회, 음악회, 컨퍼런스,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탁월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복원 공사는 1925년 건립 당시 자료를 근거로 역사적 가치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각 실별로 진행했다. 붉은 벽돌이 특징인 르네상스 양식의 옛 서울역사는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다. 과거 1층에 대합실과 귀빈실, 2층은 이발소, 고급 레스토랑(그릴)이 있었고 지하는 사무실로 활용돼 왔다.

이번 복원 공사로 1층 중앙홀이 공연·전시·이벤트·카페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바뀐다. 일제 강점기 조선 최고의 양식당으로 유명했던 2층 그릴은 공연·전시·세미나·회의 등을 위한 다목적홀로, 2층의 나머지 공간은 아카이브·기획전시실 및 사무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옛 서울역사의 역사적·공간적 잠재력을 극대화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서울역을 세계도시 서울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낙후된 서울역 주변 도시공간을 '문화역서울 284'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성장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원형복원 개관기념 예술프로젝트

내년 2월까지 60여 개 행사 잇따라





설치작가 이불씨의 작품 〈기억〉

지난 8월 9일 옛 서울역사의 원형복원 개관과 함께 개관기념 예술프로젝트인 〈카운트다운〉이 열렸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35명의 현대 예술작가들이 전시회, 공연, 영화 등 총 60여 개의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구 서울역사는 복원 상태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 벽과 천장에 못을 박는 등의 설치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제한을 수용한 예술프로젝트 〈카운트다운〉은 복원 상태 그대로에서 예술작품들의 실험적인 전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운트다운〉이 종료되는 내년 3월, 구 서울역사는 문화역서울 284로 공식 출범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전시일정 2011년 8월 9일~2012년 2월 9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관람료 무료(10월 1일 이후 유료, 일반 2천원)
문화역서울 284 seoulstat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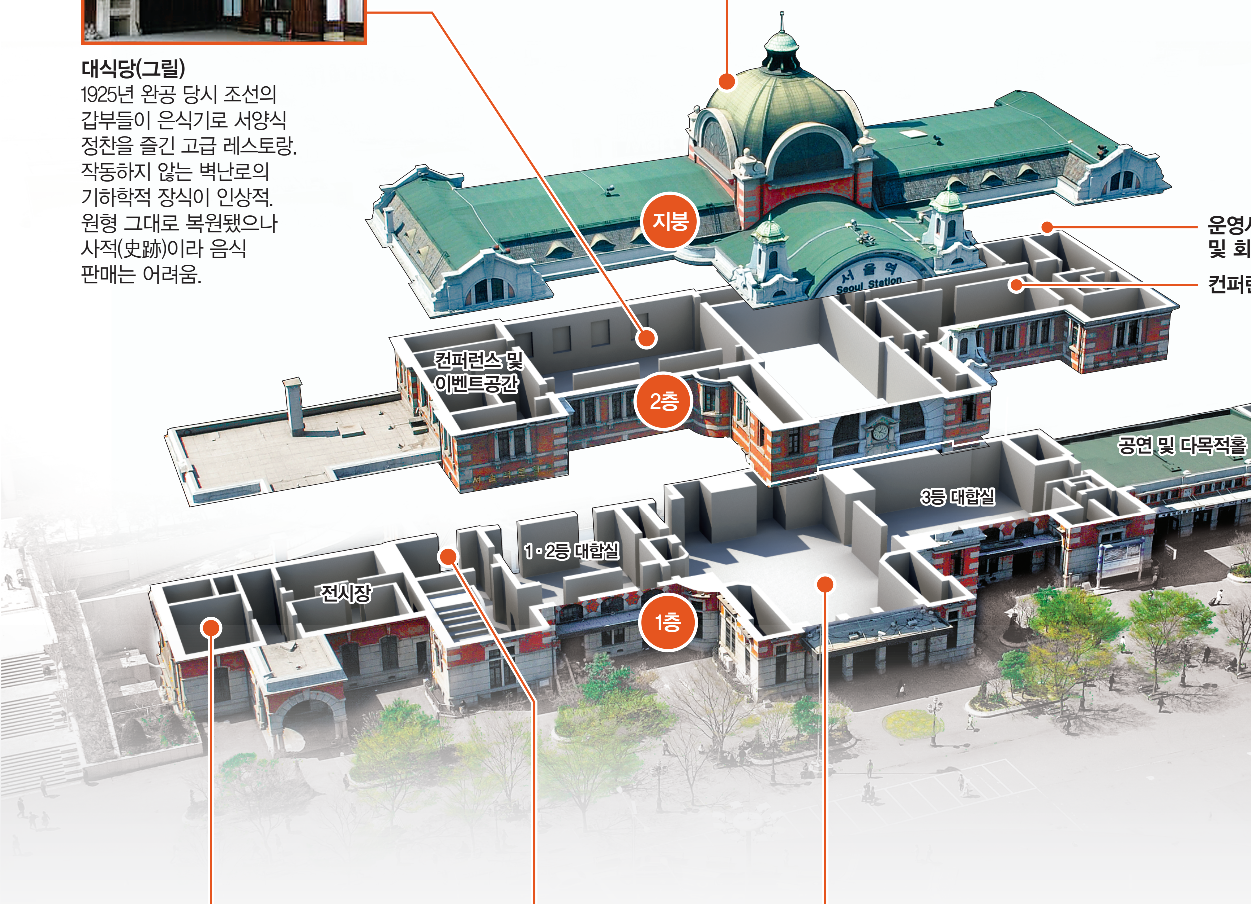
대식당(그릴)
1925년 완공 당시 조선의 갑부들이 은식기로 서양식 정찬을 즐긴 고급 레스토랑. 작동하지 않는 벽난로의 기하학적 장식이 인상적. 원형 그대로 복원됐으나 사적(史跡)이라 음식 판매는 어려움.



돔 내부

중앙 돔 지붕
1985년 태풍으로 파손돼 해체 후 새 동판 씌워. 한동안 노란기도는 붉은색이었다가 시간 지나며 녹슬어 진녹색으로 변해. 이번 복원에서도 미리 녹슬게 해 색깔 맞춘 새 동판 일부 씌움





귀빈실



대통령 공간이 일반인 공간과 섞여 있는 유일한 곳.
벽난로만 옛날 모습 그대로.

부인대합실



살구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고급 타일로 벽을 장식.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중앙홀



높이 16m 천장에 새 스테인드글라스 (8m x 8m·64조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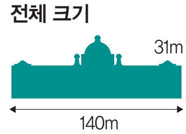
그래픽·김현지 기자, 김충민 기자



구 서울역사 연혁

1915년	남대문역 건설(1922년까지 사용)
1923	남대문역→경성역 개칭
1925	9월 경성역사(구 서울역사) 건설
1947	11월 경성역→서울역 개칭
1981	9월 사적 제284호 지정
2004	KTX 고속철도 개통

구 서울역사 전체 크기



〈트릭아트전 시즌2〉

그림아! 또 놀~자



예술 작품을 재미있게 구성한 〈트릭아트 특별전 시즌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트릭아트 시즌2〉 전시가 한창이다. 전시 작품에 관람객의 재치가 곁들여진 '연출 사진'은 여름 휴가기간 중에도 연일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트릭아트 시즌1〉이 대부분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착시회화 중심이었다면 〈트릭아트 시즌2〉는 디지털영상장비를 사용하여 가상공간을 체험하는 착시영상, 생활용품과 생활공간 곳곳에 과학원리를 적용하여 착시공간을 창조하는 착시조형 등 두 가지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트릭아트 시즌2〉에는 반 고흐, 마네 등 서양미술의 거장 50인의 원작을 패러디한 작품과 동물을 입체화한 그림 등 1백20여 점의 트릭아트 작품과 40여 점의 미디어 아트 및 착시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기존의 관람만 하는 전시와 달리 '트릭아트'는 관람객들이 작품에 다가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하며 사진으로 남기는 형식으로 관람객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글과 사진·권효빈 객원기자

전시기간 8월 18일까지 **장소** 일산 킨텍스 제3전시관 A홀
관람료 1만2천원 **문의** www.mbctrickart.co.kr ☎1566-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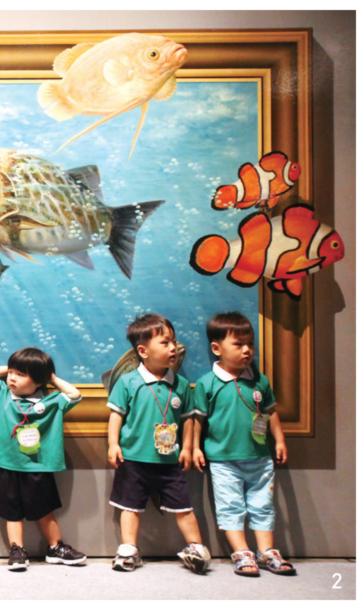












1 한 남자아이가 브론치노의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를 패러디한 착시회화 작품을 체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 견학 온 유치원생들이 착시회화 작품 〈열대어〉 앞에서 개성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치 바닷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준다.

3 착시공간 〈노트북〉에서 관광객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4 〈에임즈의 방〉은 착시조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5 관람객들이 착시조형물 작품을 체험하고 있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강원도 고성

관동별곡 8백리 해안길 옛 시인의 노래 들리는 듯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강원도 고성은 가슴 아픈 분단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다. 도로에 수시로 보이는 군용 지프와 트럭, 검문소가 북쪽 땅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준다. 하지만 고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여행자를 즐겁게 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고요한 호수와 운치 있는 바다가 있다. 특히 지난 7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휴가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제7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시 언급했던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생태관광길' 중 하나, 해안누리길도 조성돼 있다.



화진포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모래밭. 드라마 〈가을동화〉의 배경이 됐던 화진포 해변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

고성 '관동별곡 8백리길'이 있다. 강원도가 송강 정철이 유람 다니며 〈관동별곡〉을 지은 해안길을 따라 조성했다. 제1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화진포광장까지 이어지는데, 약 18킬로미터에 달해 무더운 여름에 걷기에는 다소 무리다. 여름 휴가를 목적으로 떠나왔다면 2구간을 걸어볼 만하다. 화진포광장에서 거진항까지 이어진다. 길이는 약 4.5킬로미터다. 천천히 걸어도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출발지인 화진포광장(화진포해양박물관)에서 금구교를 건너면 화진포해수욕장이다.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준서가 은서를 업고 해변을 걷던 곳으로 유명하다. 모래밭은 파도가 해변을 쓸고 지날 때마다 '차르륵 차르륵' 하는 맑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모래빛보다 더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물빛이다. 백사장 앞은 맑은 옥색, 그 뒤는 초록을 머금은 청색, 수평선 가까운 곳은 옚은 쪽빛을 띤 짙푸름이다.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싶을 만큼 빼어나다.

'가을동화'만큼 감동적인 화진포 물빛

화진포해수욕장에서 거진항 방면으로 향하면 화진포호다. 둘레가 16킬로미터, 넓이 2.3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자연호수 중 가장 넓다. 호숫가엔 갈대가 우거지고, 둘레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숲이 자리하고 있다. 겨울에는 수천 마리의 철새와 고니가 날아들어 말 그대로 '백조의 호수'로 변한다.

화진포(花津浦)는 여름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돼 있어 호수를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화진포 호수를 약 2킬로미터 따라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거진항 이정표를 따라 왼쪽으로 접어들어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거진등대공원 등산로(관동별곡 8백리길) 약 2킬로미터, 30분 소요'라고 쓰인 이정표가 있다. 이 이정표를 따라 산길로 올라가면 등대공원에 닿는다. 이곳에서부터 왼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거진등대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이 길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 큰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의 맛도 이에 못지않다. 고개를 넘는 순간 왼쪽에 탁 트인 바다를 두고 걷는다. 길 중간중간 쉼터가 마련돼 있어 다리를 쉬기에도 좋다.

걸음이 닿는 곳은 종착지인 거진항이다. 1970~80년대만 해도 명태잡이 철이 되면 전국의 배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고, 시쳇말로 '개가 5백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할 만큼 모든 게 풍족했다. 하지만 명태가 다른 곳으로 몰려가면서 지금은 명맥만 유지할 뿐이다.

쇠락하고 있는 항구라지만 거진항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산과 바다, 그리고 마을의 풍경이 기가 막히게 어울려 있다. 거진항의 아름다운 풍광은 항구 반대쪽 방파제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바다쪽으로 불쑥 나온 방파제 끝에 서면 거진의 포구가 한눈에 들어온다.

거진항 닿기 전, 언덕에서 거진항까지는 보행자 갓길이 없으니 유의할 것. 화진포 호수 구간에서 거진항까지는 물과 간식을 구할 곳이 없다. 출발하기 전 화진포해수욕장이나 화진포광장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화진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도 볼 만한 곳이



송지호오토캠핑장은 하얀 백사장과 얕은 수심의 송지호해수욕장을 끼고 있다.


송지호를 전망할 수 있는 나무데크.

많다. 송지호해수욕장은 화진포해수욕장 못지않게 유명하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모래밭을 배경으로 송림이 우거져 있고, 뒤편으로 설악산이 버티고 있어 운치를 더한다. 해수욕장을 끼고 오토캠핑장도 조성돼 있는데 캠핑장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더욱 낭만적이다.

소나무숲과 호수를 낀 송지호해수욕장

송지호해수욕장 건너편은 송지호다. 호수 둘레 4킬로미터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어느 석호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송지호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이국적인 자작나무와 울창한 갈대숲이 어우러진 고혹적인 모습에 한동안 넋을 잃게 된다.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하고 자작나무 숲에서 날아온 새소리가 발치에 내려앉는다. 호수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가 마련돼 있어 한나절 느긋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2007년 개관한 철새관망타워에도 가 보자. 5층 전망대에 서면 호수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데, 멀리 설악산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정면에는 호숫가 위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가 운치 있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이다.

송지호철새관망타워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송림 산책길이 있다. 송림을 지나면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데크가 있는데, 이곳에서 천학정까지 7.7킬로미터. '관동별곡 8백리길 제8코스 시작'이라는 노란색 표지판이 서 있다.

이 표지판을 따라 계속 가면 송지호교, 봉수대해수욕장, 삼포해수욕장, 백도항을 지나 천학정에 닿는다. 청간정과 더불어 고성8경으로 꼽히는 천학정은 깎아지른 해안절벽에 위치해 있다. 주위에는 1백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옛 정취를 느끼게 해 준다. 아름다운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

아이와 함께라면 통일전망대에도 가 보는 것이 좋다. 가는 길 내내 도로에 수시로 보이는 군용 지프와 트럭, 검문소가 북쪽 땅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벼랑끝에 자리한 천학정.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진 고성 통일전망대에 서면 휴전선과 금강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는 에메랄드빛 동해바다가 아스라이 펼쳐진다. 비무장지대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한국군관측소도 아련하게 보인다.

해금강도 조망할 수 있다. 현종암, 부처바위, 사공바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기묘한 모습으로 떠 있다. 맑은 날이면 금강산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통일의 염원 담은 통일전망대 · DMZ박물관

통일전망대에서 DMZ박물관이 가깝다. 최북단 군사분계선과 근접한 민통선 내에 자리 잡고 있다. DMZ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비무장지대다. 세계 유일의 DMZ를 통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DMZ박물관 가까이 있는 명파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최북단 해수욕장이다. 밝은 파도란 뜻의 이름인 명파. 발 아래로 밀려드는 맑은 바닷물이 명파해수욕장의 이름을 증명해 준다. 여름 성수기에만 문을 여는데 긴장감 넘치는 철책 아래서 맛보는 나른한 휴식이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서울에서 6번 국도와 44번 국도를 이용해 양평과 홍천을 지나 한계리 민예단지까지 간다. 이곳에서 좌회전해 46번 국도를 따라 진부령을 넘으면 고성이다.

잠잘 곳 해변을 따라 **캔싱턴동해비치콘도**(033-631-7601), **코레스코 삼포콘도미니엄**(033-631-3811) 등 콘도가 많다. 7번국도변에 모텔과 여관이 많이 들어서 있다. **송지호오토캠핑장**, **화진포야영장**(033-681-1144)과 **봉수대야영장**(033-636-6661) 등 야영장 시설도 갖춰져 있다.

먹을 곳 화진포해수욕장에서 거진 방면으로 가다 보면 **화진포메밀막국수**(033-682-4487)가 있다. 동치미 국물을 육수로 사용해 개운하고 담백하다. 거진항 **제비호식당**(033-682-1970)은 도치알탕과 대구맑은탕, 가자미조림 등 생선요리 전문식당이다.

조리기구 싣고 '찾아가는 쿠킹버스'



어린이들이 직접 요리하며 잘못된 식습관 고친다



조선DB

개조된 버스에선 아이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틈틈이 영양교육을 받는다.

식생활 변화로 소아·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은 어렵다. 오랫동안 굳어진 식습관을 바로잡기도 쉽지 않다. '찾아가는 쿠킹버스'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출발했다.

쿠킹버스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문화를 전파하는 '식생활 문화 개선 버스'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 가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까지 초등학교, 청소년시설·복지관 등에서 1만5천여 명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쿠킹버스는 실제 조리 실습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9.5톤의 저상 초장축 트럭이다. 차의 옆면을 펼치면 60제곱미터(18평) 크기로 확장돼 30명의 수용 공간이 생긴다. 차량 내부에는 냉난방기와 냉장고, PDP TV, 싱크대, 조리대, 전기오븐 등이 마련돼 있다.

버스에 탑승하면 아이들은 '하루 3번, 6종류, 5가지 색깔 먹기'를 주제로 채소와 과일 소비의 필요성, 컬러푸드의 영양적 기능인식, 골고루 먹는 식습관 등을 교육받게 된다. 참가자들은 사용하는 식재료를 식품구성탑(식품을 여섯 가지 군으로 나눠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각층의 위치와 크기로 표현한 것)과 연관해 생각해 보는 카드놀이를 비롯해 계량도구 사용법 등을 배운 후 요리실습을 갖는다.

5군영양소가 가득한 궁중떡볶이, 저칼로리 야채피자나 두부버거, 고단백건강식 닭떡꼬치, 검은깨 쿠키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하루 세 번, 다섯 가지 색깔 먹기' 교육

이후 실습대 정리까지 마치고 나면 식사 일기 쓰는 시간이 기다린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먹었던 음식을 토대로 식사 일기를 작성하면서 균형잡힌 식사를 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스스로 점수를 체크하며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거친다.

정진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식생활문화개선사업팀장은 "요즘 많은 어린이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며 "'찾아가는 쿠킹버스' 등 식생활 개선 캠페인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알리고 실천하게 하는 건강놀이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기업의 사회공헌팀의 참여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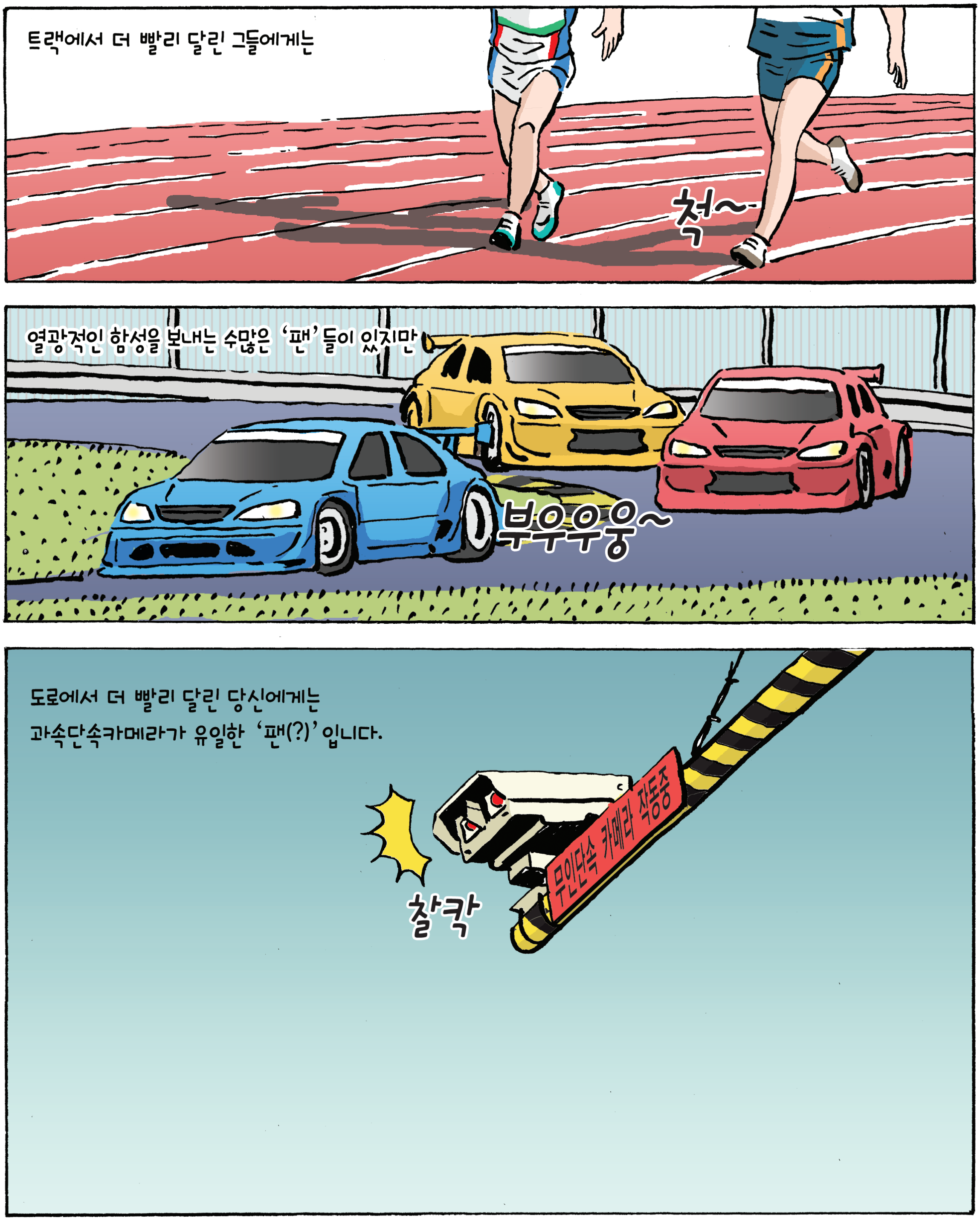
'찾아가는 쿠킹버스'는 초·중등학교와 아동·청소년 단체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쿠킹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G

글·박근희 기자

문의·쿠킹버스 홈페이지 www.cookingbus.net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식생활문화개선사업팀 ☎02-2667-0811

과속의 추억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과속하고 싶다면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입 주위 근육 운동으로 충치·소화장애 없앤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로 치며 중시했다. 통증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먹는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건강생활의 기본이 여기서 출발한다. 게다가 업무에 시달리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다 보면 소화장애를 겪게 되기 십상이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속이 더부룩하다며 식사를 건너뛰거나 약을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어정쩡한 자세도 그런 증상들을 더 악화시킨다.

태극권의 많은 동작들이 직립보행으로 굳어져 있는 내장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척추를 곧게 세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기능도 한다. 속을 편하게 하는 태극권의 동작과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입주위의 근육을 풀어 주는 행심공법을 따라해 보자. G

치아와 입주위 근육을 건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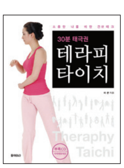
관자놀이뼈를 위아래로 운동시키고 치아를 튼튼히 해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간단한 동작을 따라해 보자.



1 입을 크게 벌리고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9회 되풀이하는 이문골(귀 앞쪽 밑에 있는 뼈)운동.



2 입을 다물고 입술을 붙인 채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72회 마주친다. 이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동작. 부딪치는 소리가 나게 하고 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삼킨다.



대한태극권협회 명예회장인 이찬 선생이 국민건강을 위해 누구나 쉽게 태극권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테라피 타이치'는 병상의 환자들도 쉽게 익히며 몸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중요 초식들을 모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도록 만든 '치유의 태극권'이다.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CD가 함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동아E&D 발행·1만4천5백원

땅의 기운을 받아 더부룩한 배를 편안히

태극권 건신12단금 중 9단인 '팔뻗고 반듯이 앉기'동작이다. 조금 긴 듯하지만 하나로 연결된 이 동작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구부려 앉아 땅의 기운을 내 속으로 쓸어올리는 동작을 통해 배와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다.



1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려 11자로 디딘 후, 숨을 들이쉬며 양손 손등이 위를 향하게 서서히 들어 올린다.



2 숨을 내쉬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는다. 양팔도 물속에 가라앉듯 서서히 밑으로 늘어뜨린다.



3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숨을 들이쉬며 땅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기분으로 양팔을 각각 옆으로 뒤로 원을 그리며 돌려 앞으로 가져오되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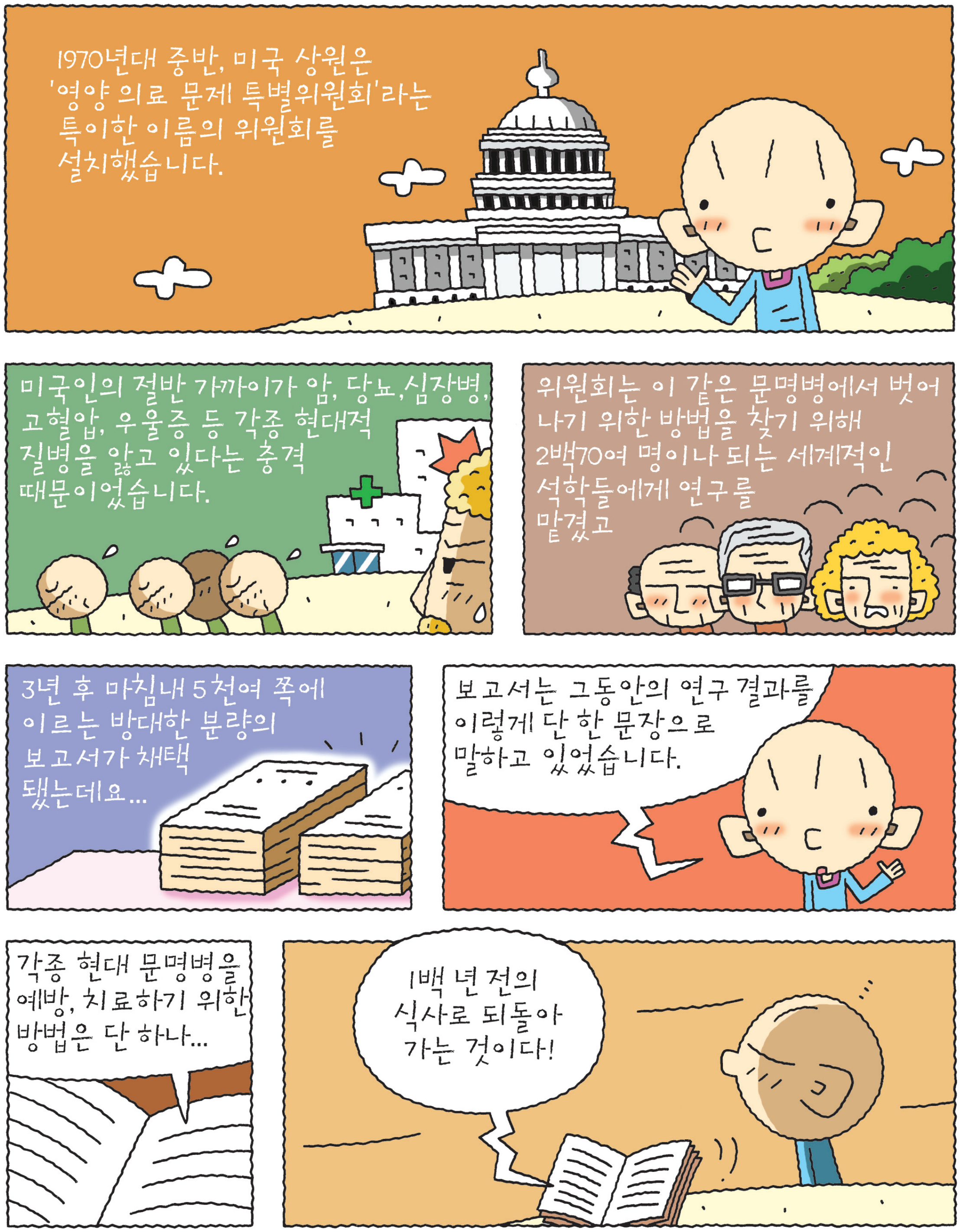
4 끌어모은 땅의 기운을 손에 쥐듯 가볍게 주먹을 쥐고 서서히 일어선다. 동시에 양팔도 물속에서 떠오르듯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린다.



5 양손 주먹을 아래로 돌리면서 펴 손바닥이 땅을 향하게 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팔을 내려 대퇴부 옆으로 오게 한다. 이 동작을 2회 반복한다.

5천 쪽짜리 보고서가 내린 단 하나의 결론!

글과 그림 · 최영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교육 개혁은 급식 개혁이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사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선무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어린이들의 미래는 절대 낙관할 수 없다.
– 신야 히로미(미국의 A.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교수)



콘서트 **다니엘 바렌보임 평화콘서트**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다니엘 바렌보임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27년 만에 내한한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 아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장벽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염원을 노래할 예정이다. 분쟁 지역인 아랍과 이스라엘의 젊은 연주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DMZ에서 여는 콘서트라 의미가 깊다.

일시 8월 15일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관람료** 전석 3만5천원 **문의** 1577-5266

스포츠 **올댓스케이트 서머 2011**



'피겨여왕', '더반의 여왕' 김연아가 오는 8월 13~15일 3일간 아이스쇼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 '오마주 투 코리아'를 선보인다. 김연아를 비롯해 2011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패트릭 챈(캐나다), 2010 밴쿠버올림픽 페어 금메달리스트 셴 슈에-자오 홍보(중국), 밴쿠버올림픽 아이스댄스 금메달리스트 테사 버추-스캇 모이어(캐나다) 등 세계 정상급 스케이터들이 총출동한다. 동계올림픽을 연상할 수 있는 무대와 첨단 특수 효과, 화려한 LED 영상 효과 등을 총동원해 지상 최대의 아이스쇼를 펼친다.

일시 8월 13~15일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관람료** KISS & CRT존 29만7천원, SR석 21만원 R석 16만5천원 S석 11만원 **문의** 1544-1555



전시 **2011 부천국제만화축제**

국내 유일의 만화전문 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가 14회를 맞는다. '이제는 스마툰(Smart+Cartoon)이다 - 스마트한 세상, 새롭게 만나는 만화'를 주제로, 주제전시인 '스마툰'을 포함해 1985년 발간된 최초의 순정만화 무크지 <아홉 번째 신화>를 복간한 작품도 전시한다. 고(故) 김종래 작가 사후 10주년 기념전시인 '김종래 특별전'과 세계어린이 만화가 대회, 코스프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일시 8월 17~21일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및 영상문화단지 일대 **문의** 032-310-313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1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는 국내외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1개국 52종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이다.

광복절을 맞아 평화와 미래를 노래하다!

클래식 <2011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광복절을 맞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화합의 노래를 연주하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가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52종 전통악기로 꾸며진다. 각기 다른 전통악기들을 한국과 아세안의 작곡가·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율해 연주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작곡가 겸 지휘자 김성국(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의 세련된 편곡으로 재탄생한 <쾌지나 칭칭>을 오프닝으로 해 캄보디아의 <레브리>, 인도네시아의 <벤가완 솔로>, 미얀마의 <키렛 프데이다>, 베트남의 <판타지 베트남> 등 총 11개국의 민속음악들을 선보인다.

피날레를 장식할 작곡가 박범훈(교육문화수석)의 '사랑해요, 아시아'는 <2011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의 평화와 화합의 뜻을 담은 곡으로 각국의 특징적이고 민속적인 선율을 느껴 볼 수 있다. 휘모리장단의 큰 틀에 11개국 52종의 전통악기 연주, 각국의 언어로 된 가사, 각국의 특징적이고 민속적인 선율로 구성해 나라와 나라가 서로 화합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이지(www.cct.go.kr)에서 8월 12일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G

일시 8월 15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무료 **문의** 02-745-3880~1

서울시향 광복절 선물 광화문광장서 무료공연

〈광복 66주년 기념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66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

서울시향은 2005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경축하고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야외 연주회인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 정상급 연주자의 협연 등으로 뜨거운 참여와 호응을 받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광복 66주년을 경축하는 이번 음악회 역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로 2011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자인 피아니스트 손열음,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한국인 최초 베를린 도이체오퍼 주역가수로 활동 중인 테너 요셉 강이 무대에 오른다. 젊은 소리꾼 이자람이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Avignon Festival Off) 초청작이었던 〈사천가〉로 참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2011 유럽순회공연(8월 19~27일) 프로그램 중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3악장과 서울시향의 첫 인터내셔널 발매 음반 수록곡인 라벨의 〈라 발스〉도 연주한다. 〈라 발스〉는 정명훈 예술감독의 장기인 프랑스 음악으로 작년 5~6월 진행된 유럽 투어에서 호평을 받은 곡이다. 이번 음악회는 1만2천여 명이 선착순으로 입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천 시는 다음날인 광복절 오후 8시 동일 장소에서 진행한다. G 글 · 김선영 인턴기자

일시 8월 14일 오후 8시 **장소** 광화문광장 **문의** 120(다산콜센터)



사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올해 〈광복 66주년 기념 음악회〉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가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다.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코믹뮤지컬 프리즌	예스24아트홀	8월 15일까지	1588-4446
모비딕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8월 20일까지	02-708-5001
내 마음의 풍금	호암아트홀	8월 28일까지	02-744-2588
아가씨와 건달들	LG아트센터	8월 28일까지	1577-3363
연극			
광복절 기념 독립운동 창작극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8월13~14일	041-560-0114
우먼인블랙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9월 10일까지	02-747-2090
씬짜오몽실	소극장 모시는 사람들	9월 18일까지	02-507-6487
유츄프라카치아	북촌아트홀	9월 3일까지	02-924-1478
콘서트			
2011 김범수 콘서트 '겟올라잇쇼' 내가 범수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8월 20일	1544-1555
장혜진 전국투어콘서트 '그 여자'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9월 3~4일	1644-4575
클래식			
조수미 콘서트 'Bohemian'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8월 23일	063-270-8000
축제			
제21회 시흥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무궁화동산 옥구공원	8월 12~15일	031-310-3962
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장	8월 8~15일	033-242-8450

8월 첫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7월 24일~7월 30일

	곡명	가수
1	Good-bye Baby	miss A
2	나 가거든(조수미)	박정현
3	Hate you	2NE1
4	술이야(바이브)	장혜진
5	UGLY	2NE1
6	남자니까 웃는거야	창민&이현(HOMME)
7	Grand Final(Feat. 정인&MC날유)	리쌍
8	Roly-Poly	티아라
9	밤 하늘에	애프터스쿨 RED
10	희나리(구창모)	김범수

책임입니다

"엉터리 존대법, TV의 책임이세요"



일러스트·이철원

요 몇 년 새 몹시 듣기 싫은 말 중 하나는 엉뚱한 데다 존대를 하는 어법이다. 대관절 누가 언제 이런 엉터리 존대법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TV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커피 한 잔 주세요." / "3천원이세요."

"시럽 좀 넣어 주세요." / "시럽은 저쪽 테이블에 있으세요."

장담컨대 이 커피집 직원은 잔돈을 거슬러 주며 명랑하고 공손한 말투로 "여기 2천원이세요"라고 외칠 것이다.

국어의 존대법에는 주체존대와 객체존대, 상대존대가 있다. '주체존대'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오신다" 같은 존대법이다. '객체존대'는 문장의 목적어나 처소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를 높인다. "이 물건을 아버지께 전해 드려라" 같은 문장이다. '상대존대'는 대화의 상대를 높이는 것으로 "별일 없으십니까?" 같은 어법이다. 요즘의 엉터리 존대는 높일 필요가 없는 사물을 존대하는 '주체존대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실로 방대한 영역에 이 주체존대의 오류가 퍼져 있다. 요즘 골프장에서는 OB(Out of Bounds·공이 골프 코스를 벗어나는 것)가 나면 캐디가 "OB세요"라고 말한다고 한다. 내가 친 공이 OB가 난 것도 화가 나는데 캐디는 OB에다가 존대를 하고 있으니 짜증이 치민다고 한다.

'이상한 존대'의 또 다른 유형은 의존명사 '분'의 남용 또는 오용이다. '분'은 보통 '그분' '저기 계신 분' '손님 두 분'처럼 쓰이는 말인데, 요즘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것이 유행이다. 얼마 전 프로야구 경기에서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시구(始球)를 해서 구설에 올랐던 여자 연예인은 "(옷을 준비해 준) 스타일리스트분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은 마땅한 존댓말을 찾기 어려운 모든 직함에다가 '분'을 붙인다. '매니저분' '코디분' '디자이너분'…. '분'이 '님'을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맞춤법을 소재로 한 예능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그 밖에 요즘 TV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지인(知人)'이다. 지인은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란 뜻이니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이 명사는 말보다는 글에 많이 쓰이는 문어체의 단어다. 스무살 안팎의 연예인이 TV에 나와 "제 지인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뭔가 격(格)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 "제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고전(古典)과 현대문학은 물론 신문도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어법을 배운다. 이 세대는 많은 사람이 쓰는 말을 올바른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TV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개그맨도 좋고 아이돌 그룹도 좋으니, 맞춤법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형식은 능력 있는 프로듀서들이 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 겨루기' 같은 고상한 프로그램보다는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등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TV는 엉터리 어법을 출연자들의 말과 자막으로 전파한 잘못도 있으니,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지 않은가. G

글·한현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 기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마더하세요
마음을 더하세요
늘 마음을 더해주는 고마운 마더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엄마가 되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 충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당신이 만들어 주세요
출산 준비물을
물려주시는
[멘토같은 마더]
육아휴직 1년 동안
잘 키웠다고 칭찬하시는
[든든한 마더]
애들이 기다리는데
빨리 퇴근하라는
[따뜻한 마더]
배우자출산 휴가중인
후배의 일을 대신해주는
[의리있는 마더]
COLORCODE®
COLORCODE® POP 앱을 다운받아 찍어보세요
[모바일 웹에서 진행중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마음도 더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찾아라 공정사회 EVENT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공감코리아

공정이를 찾아라!

공정사회 홈페이지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공정이를 찾아 주세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참여하여 공정이를 많이 찾을수록
선물이 팡팡! 여러분의 공정 지식이 쑥쑥~

공정지식이 쑥쑥~

이벤트 기간 2011년 8월 17일까지

당첨자발표 2011년 8월19일

참여방법 공정사회 홈페이지 http://fair.korea.kr에 접속
공정이를 많이 찾을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품

경품	인원
로봇 청소기	1명
관광상품권 20만원권	3명
문화상품권 1만원권	100명
카페라떼	1,000명



공정사회 특집

릴레이 퀴즈 이벤트

경품	인원
외장하드 [320G]	5명
문화상품권 [3만원]	20명
온누리상품권 [3만원]	10명

참여방법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 접속 > 정책플러스 > 정책퀴즈
※ 매주 금요일마다 퀴즈이벤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 응모하세요! korea.kr